

#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Dream of Incheon, the Vision of Korea

인천에는 설렘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세계 제일의 공항인 인천공항, 최대의 물동량을 자랑하는 인천항,  
경제자유구역 1호인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무한한 발전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인천의 강점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입니다.

인천의 꿈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이제 당신을 꿈의 무대로, 대한민국을 이끄는 리더로  
인천이 새 비전을 만들어 갑니다.



# 굿모닝 인천

Good Morning  
INCHEON



# 인천 통통(通通)

인천은 '통통'합니다.  
시민과 통하고 세상과 통합니다.  
인천이 궁금하시다면  
인천시 미디어와 인천시 SNS와  
통하세요.  
인천시는 시민여러분을 향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 인천시미디어

인천시 시청소식지 '굿모닝인천'(goodmorning.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방송 '민트TV'(tv.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enews.incheon.go.kr)

인천시 블로그 '잉크'(lncneonblog.kr)

인천시미디어 블로그 '인천N조이'(blog.naver.com/happyou)

스마트폰 앱 '인천시미디어'(smart.incheon.go.kr)

## 인천시 SNS

인천시 소셜웹(social.incheon.go.kr)

인천시 트위터(twitter.com/smartincheon)

인천시 페이스북(facebook.com/flyic)

굿모닝인천(goodmorning.incheon.go.kr)은,  
'인천시미디어' 앱, 소셜웹(social.incheon.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합니다.

구독문의 032-440-8306

(해외에 있는 친지에게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06 **시정결산** 개최 대회로 보는 인천
- 12 **스페셜** LP가 흐르는 인천의 음악카페
- 18 **연말 특집** 따뜻하게 사는 법
- 24 **2014 이별 기행** 배다리의 사진 공간
- 28 **포커스** 2014 인천시 주요 뉴스
- 32 **내 길 내 일** 연극배우 박상숙
- 34 **송년과 성탄** 기독교 공간
- 38 **문화** 따뜻한 연말공연
- 42 **'인천공보'로 본 60년 전 인천** 성탄 축하목 위해 나무 뽑지 마시오
- 44 **시정뉴스** 유 시장, 투자유치 위한 중국방문 외
- 48 **의정뉴스** 위험, 취약시설 현장점검 외
- 50 **이달의 서평** 사진과 연표로 보는 인천체육사 외
- 51 **인천 사는 이야기** 가야금 소리에 이끌린 동심 외
- 52 **생활정보**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인천을 위한 전략과 대책 외
- 56 **2014년 굿모닝인천 과월호 목차**
- 58 **모닝커피 한잔** 이명운 해반문화 운영위원장



표지이야기

매일 뜨고 지기에, 그 빛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해를 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해의 끝에서 맞이하는 해는, 막막해  
지는 감정을 어루만지며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줍니다. 그 빛은 단순한  
일몰이 아닌, 내일 더 환히 세상을 비출 오늘의 태양입니다.

노을 내린 올왕리 선착장에서

## 인천십사년 십이월

Incheon monthly magazine

Vol.252

## contents

12



18



24



발행처 인천광역시 발행일 2014년 12월 1일 발행인 인  
천광역시장 편집인 우승봉(대변인) 편집장 유동현(미디어  
팀장) 취재 편집위원 이용남 / 편집위원 정경숙 / 편집위원  
김윤경 사진 김보섭 · 정정호 · 김상덕 · 유창호(자유사진가)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편집디자  
인 · 인쇄 웨스트크(주)

## @120incheon

시민께서 인천시 종합민원센터인 미추홀콜센터의 트위터(@120incheon)를 통해 문의한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천시는 시민 여러분이 하시는 말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버스 이용 시 불편한 점을 신고할 때, 미추홀 콜센터 트위터를 이용하면 되나요?**

반갑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교통 불편 신고는 미추홀 콜센터(032-120)로 전화 주시면 접수 가능합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하세요.

**부평시장 로타리 지하상가가 지금 관리문제로 떠들썩합니다. 민원도 여러 번 제기했는데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있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570-7178) 및 시 건설심사과(440-3736)에 확인한 결과, 운영에 관한 민원 내용이 접수되어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으며, 원활한 소통을 위해 상인들을 만나 계도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더욱 자세한 민원처리는 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님을 꼭 칭찬해 주세요. 3일 19시 10분 현재 부평역에서 굴다리 오거리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번호는 ○○바○○○○입니다.**

시민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시 버스정책과로 해당 내용을 접수하여 운수회사로 전달했으며, 친절왕 표창 후보자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인천 통통(通通)

인천은 '통통'합니다.  
시민과 통하고 세상과 통합니다.  
인천이 궁금하시다면  
인천시 미디어와  
인천시 SNS와 통하세요.  
인천시는 시민여러분을 향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goodmorning.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방송 '민트TV'(tv.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enews.incheon.go.kr)

인천시 블로그 '링크'(incheonblog.kr)  
인천시미디어 블로그 '인천N조이'(blog.naver.com/happyyou)  
스마트폰 앱 '인천시미디어'(smart.incheon.go.kr)

### 인천시 SNS

소셜웹(social.incheon.go.kr)  
트위터(twitter.com/smartincheon)  
페이스북(facebook.com/visionincheon)  
블로그(incheonblog.kr)



## 나는 굿모닝인천 마니아!

'굿모닝인천' 독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우리 가족의 추억이 흐르는 인천

독자 김수연(48, 일산 동구)



김수연님은 결혼을 하면서 서울에서 인천 부평으로 와 22년을 살았습니다. 4년 전에 일산으로 이사를 갔지만, 마음은 여전히 인천에 머물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며 가족이 함께 한 소중한 추억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있어 인천은** 인천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었다. 처음 정들었던 인천을 떠나서 일산으로 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적응하기 힘들었다. 날씨가 좋으면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 갔던 인천대공원을 비롯해 인천 곳곳에 가족과 연관된 추억이 많다. 그 기억에 늘 아쉽고 그립다.

**굿모닝인천과의 인연** 전반적으로 책 내용의 수준이 높다. 미처 몰랐던 인천 명소에 대한 이야기, 사람에 대한 이야기 등이 다채롭게 담겨 있다. 인천에서 22년을 살면서도 모르고 지나간 사실을 알게해 주어서 고맙다. 덕분에 인천을 찾는 친구들에게도 인천을 추천해 줄 자신이 생겼다.

**인천 하고 싶은 말** 인천에서 오랜 시간 살아왔지만, 인천은 지금 사는 일산에 비해 교통이나 교육 등 모든 면에서 뒤지는 것이 없다. 하지만 아직 인천하면 지방도시라는 인식이 강한 것 같아서 아쉽다. 인천에는 차이나타운과 월미도 등 특색 있는 명소가 많다. 그 특성을 살려 잘 홍보해 사람들의 발길을 모았으면 한다.



##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창간부터 지금까지 '굿모닝인천'과 함께 한 독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인터뷰에 참여하신 분께는 작은 선물(온누리상품권 1만원권 3장)을 드립니다.  
문의 : 440-8305, goodmorning.incheon.go.kr



# 대회 유니폼으로 돌아보는, 뜨거웠던 2년

지원요원

지난 2년간, 인천은 스포츠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우리시는 2013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를 시작으로 하이라이트인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마지막을 장식한 전국장애인체육대회까지 스포츠 빅 이벤트를 연이어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세계 앞에 당당히 섰다. 이들 대회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인천이 품은 무한한 에너지와 가능성을 세계에 알리고 인천의 꿈과 미래를 확인하는 기회였다. 물론 이 같은 성과는 300만 인천시민의 뜨거운 열원과 현장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해낸 이들이 있기에 가능했다. 대회의 성공을 도운 지원요원들과 그들의 귀한 땀방울과 열정이 스민 유니폼을 통해 그날의 영광을 되돌아보고, 더 높이 비상할 인천의 미래를 이야기한다.

글·진행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김상덕 자유사진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년 9월 19일~10월 4일



2013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2013년 6월 29일~7월 6일



제4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2014년 5월 24일~27일



제94회 전국체육대회  
2013년 10월 18일~24일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4년 10월 18일~24일



제3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2014년 11월 4일~8일



조혜경(시 시민봉사과 · 33)  
선수촌 숙박점검 지원

홍준형(시의회 의사담당관실 · 40)  
숙박부 민원 지원

윤광혁(시 투자유치담당관실 · 35)  
문학경기장 주차 지원

이정국(시 u-정보통신과 · 36)  
계양양궁장 선수수송 지원

최경희(시 시민봉사과 · 32)  
시민민원 지원

손인찬(시 대변인실 · 37)  
프레스센터 지원



## 또 한번 비상을 꿈꾸는, 그들

아시아의 중심에 대한민국 인천이 있었다. 45억 아시아인은 인천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나누고 힘차게 달리며 뜨겁게 환호했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북한을 포함해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 45개 회원국이 모두 참가하는 퍼펙트 대회로 세계인의 가슴에 깊은 감동을 주었다. 또 스포츠 약소국을 지원하는 ‘비전 2014 프로그램’으로 소외되는 나라 없이 모두가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켰다.

특히 앞선 아시아경기대회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 안정적인 면서도 안전한 대회로 치르며 차후 대회의 롤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회의 성공을 위해 뒤에서 묵묵히 도운 시 지원요원들과 함께 그날의 영광을 돌아보며 더 찬란히 빛날 인천의 미래를 이야기한다.



‘국제 감각을 키운 좋은 기회,  
우리의 큰 자산이 되길’



‘앞으로도  
국제도시의 위상 빛내길’

윤광혁(시 투자유치담당관실 · 35)

### 제4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지원

**대회를 지원한 소감** 인천이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큰 국제대회를 유치하였기에, 사실 소년체전까지는 큰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현장에 가 보니 일반 대회와는 다른 소년체전 만의 열정이 느껴져서 새롭고 뜻 깊었다.

**인천 미래에 대한 바람** 인천이 앞으로도 국제 행사를 많이 유치해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길 바란다. 국내외 투자유치로도 잘 연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살고 싶은 인천,  
가고 싶은 인천, 파이팅!”

최경희(시 시민봉사과 · 32)

### 제94회 전국체육대회

**대회를 추억하며** 직접 지원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시 민원실에 근무하며 대회와 관련된 문의 전화를 받고 민원실 티켓 판매 부스를 찾는 시민들과 만나며 뜨거운 열기를 확인했다. 또 인천 곳곳에서 각국에서 온 선수들과 마주치며 하나 되는 아시아를 느꼈다.

**인천에 한마디** ‘살고 싶은 인천, 가고 싶은 인천’이 되는 그날까지, 파이팅!



이정국(시 u-정보통신과 · 36)

###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지원

**기억 속 그들** 나라와 신체의 벽을 넘고 스스로없이 다가오는 선수들을 보며, 장애라는 편견을 없애고 많은 것을 느꼈다.

**대회를 마치고** 수송을 지원하면서 배차가 좀더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면, 하고 생각했다. 인천에서 열린 큰 행사인 만큼 아쉬움이 컸다. 하지만 최선을 다한 선수들과 지원요원, 자원봉사자들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

‘선수들과 지원요원,  
자원봉사자들에게 큰 박수를’



‘4개 대회 지원,  
도약의 현장에서 함께 해 기뻐’

손인찬(시 대변인실 · 37)

### 제3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지원

**대회를 지원한 소감** 아시아경기대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전국체전, 장애인전국체전에 모두 지원요원으로 나섰다. 인천에서 열린 뜻깊은 행사에 참여해서 기쁘고, 인천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 뿌듯하다.

**인천 미래에 대한 생각** 전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우리시 재정상황으로 조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인천의 미래는 밝고 희망차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인천의 앞날은 밝다고 믿는다.



조혜경(시 시민봉사과 · 33)

###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

**기억 속 인천AG** 선수촌에서 선수들의 활기찬 기운을 느낄 수 있어서 하루하루가 즐거웠다. 이는 젊은 자원봉사자들의 몫도 컸다. 외국어도 잘하고 선수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인천의 밝은 미래를 예감했다.

**인천AG 성과** 공과 실을 떠나서, 아시아경기대회는 인천시민들에게 국제적인 감각을 키우고 다른 나라에서 온 손님들과 격이 없이 어울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훗날 우리에게 큰 자산이 되리라 생각한다.



‘민원 해결해 주자,  
즉흥 댄스스포츠 선보여’

홍준형(인천시의회 의사담당관실 · 40)

### 2013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지원

**기억에 남는 순간** 키르기스스탄 댄스스포츠 선수의 민원을 해결해 주었더니, 감사의 표시로 숙소 로비에서 즉흥 댄스스포츠를 선사해 주었다. 따뜻한 마음은 인종도 국경도 초월한다는 것을 느꼈다.

**인천 미래에 대한 바람** 대회를 지원하며 인천이 발전해야 내가 존재한다는 애항심이 더욱 커졌다. 국제대회의 성공 개최를 발판 삼아, 인천이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이 되길 바란다.

## ‘6개 대회 6개 유니폼’으로 보는 2년간의 열전

우리는 2014년 9월을 잊지 못한다. 찬란한 빛이 대륙과 바다 건너 이 땅에 머물러 비추던 시간, 아시아는 대한민국 인천에서 하나가 되었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2년간의 스포츠 대장정을 넘으며 우리는 인천의 꿈과 미래를 확인했다. 묵묵히 뒤에서 대회의 성공을 이끈 자원요원들의 땀과 열정이 스민 유니폼을 보며 그날의 영광을 되돌아본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미래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다. 자, 이제 다시 시작이다.

글·진행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김상덕 자유사진가



###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 2013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2013년 6월 29일~7월 6일

화려한 댄스스포츠를 비롯해 아시아의 전통무술 무예, 킥복싱, 실내카바디 등 이색적인 경기를 볼 수 있는 스포츠대회. OCA가 동·하계 아시아경기대회와는 별도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개최해오던 실내스포츠대회와 무술종목대회를 통합해 2013년부터 개최했다. 한국은 총 금메달 21개, 은메달 27개, 동메달 19개를 수확, 종합 2위로 열전을 마무리했다. 다음 대회는 오는 2017년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 아시가바트에서 열린다.



### ‘역동하는 인천에서 함께 뛰자 세계로’ 제94회 전국체육대회

2013년 10월 18일~24일

아시아경기대회를 사전 점검하고 스포츠 열기를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해 지은 신설경기장을 적극 활용했다. 강화, 문학, 송림, 열우물, 계양, 남동경기장 등 최첨단 시설을 갖춘 경기장에서 선수들은 최고의 기량을 펼쳤다. 인천은 금 74개, 은 60개, 동 117개를 수확해 경기도와 서울시에 이어 종합 3위를 차지했다.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나라도 튼튼’ 제4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2014년 5월 24일~27일

5월의 햇살 아래, 스포츠 꿈나무들의 꿈이 반짝 반짝 빛났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온 미래 스포츠 스타들은 전국소년체전이 열린 인천에서 꿈과 열정을 맘껏 펼쳤다. 소년체전은 전국의 꿈나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것은 물론, 착실히 준비해 온 대회 운영시스템과 시설 인프라를 바탕으로 아시아경기대회를 사전 점검하고 준비하는 역할을 했다. 인천은 역대 대회 최고 기록인 4위를 달성했다.



###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년 9월 19일~10월 4일

45억 아시아인의 꿈이 한데 어우러진 축제 한 마당.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북한을 포함해 OCA 45개 회원국이 모두 참가해 그 의미를 더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선수들의 뛰어난 경기력과 풍성한 기록, 이를 뒷받침하는 첨단 경기시설과 선수촌 운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앞선 대회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 안정적이면서도 안전한 대회로 치르며 차후 대회의 롤모델을 제시했다. 다음 대회는 오는 2018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다.



### ‘열정의 물결, 이제 시작이다’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4년 10월 18일~24일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는 ‘Impossible(불가능)’이란 단어가 ‘I’m possible(나는 가능하다)’임을 전 세계에 증명했다.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는 열정과 도전으로 불가능을 극복하는 모습을 확인한 감동의 드라마였다. 아시아 41개국에서 온 6천196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특히 북한은 이번 대회에 33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처음으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모습을 나타냈다. 도전하는 그 자체가 자신과의 승부였으며 그들 모두 승리자이자 챔피언이었다.



### ‘다 함께! 굳세게! 끝까지!’ 제3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2014년 11월 4일~8일

전국장애인체육대회로 인천은 다시 한번 뜨겁게 달아올랐다. 장애인체육은 1981년 UN이 제정한 세계장애인의 해를 맞아 전기를 맞이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로 꽃피었다. 모든 장애인이 참여하는 종합체육행사로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최초다. 인천은 이번 대회에서 목표인 종합 1위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대회 역사상 처음으로 종합 2위에 오르는 쾌거를 거두었다.





턴테이블 위

## 추억이 돌고 돌아 흐른다

음악은 추억을 재생한다. 턴테이블 위를 돌아가는 LP판에는 젊은날, 학창시절의 추억과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친구들과 음악다방에서, 길거리에서, 좋아했던 뮤지션의 노래를 하염없이 들었던 사람들의 지난 이야기가 돌고 도는 판 위에 그대로 얹혀 흘러나온다. LP판의 정겨움은 음악속에 묻어 둔 돌아갈 수 없는 시절에 대한 그리움인지도 모른다. 한동안 사람들의 외면을 받았던 LP판이 복고풍과 아날로그에 대한 감성이 높아지면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유창호 자유사진가

노이즈 강한 록 음악을 벗 삼아  
언제 어느 때라도 들려서  
맥주 한잔 하고 싶은 장소

## 탄트라

## 볼륨 높은 록의 진수를 느낀다

신포동 금강제화 앞에서 보면 인천에서 가장 오랫동안 LP를 트는 음악 카페 3곳이 블록 하나씩 사이로 위치하고 있다. 가장 오래된 집이 '탄트라'다. 1979년에 오픈했다. 가게는 35년째 운영 중이고 현재 주인장 김국룡씨는 2대 사장이다. 그는 20년 전 이 가게를 맡았다. 그도 젊은 시절 이 가게의 단골이었다. 음악을 들으며 자주 오면서 언젠가는 이곳을 운영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다, 서른이 넘어 인수했다. 가게는 조용하고 오래된 구도심을 닮아 있다. 간판과 입구는 유럽이나 미국의 '퍼블릭 펍'의 분위기를 풍긴다. 가게를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LP판은 이 가게의 연조를 말해주는 듯하다. 오래돼 보이는 LP판이 4천500장이나 있다.

데시벨 높은 록 음악을 흥겹게 들을 수 있어 음악 마니아들이 많이 찾는다. 음악을 듣다 흥에 겨우면 음악에 몸을 맡겨도 좋다. 어둑한 조명, 노이즈 강한 록 음악을 벗 삼아 언제 어느 때라도 들려 맥주 한잔하고 싶은 장소다. 단골들은 7,80년대 올드 팝을 들으며 학창시절을 보냈던 중장년층이나 록 음악을 좋아하거나 심취해 있는 젊은이들이다.

탄트라는 진정한 음악카페를 표방한다. 가슴을 때리는 비트강한 음악을 듣고 느끼고 싶다면 이곳으로 가면된다. 오래된 판에서 들려오는 '칙칙'거리는 소리조차 정겹다. LP가 도시의 차가움을 가셔준다.

사장 김국룡씨는 학생시절부터 이글즈, 스모키, 딥퍼플 등의 록 그룹을 좋아해 그들의 음악을 껴고 살았다. 그는 외국팝 가수들의 백판을 사서 모았던 '백판키즈'였고 20대 때는 음악다방 DJ로도 활동했다. 그는 음악카페를 운영하는 일이 음악을 좋아하고 즐겨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운영시간 오후 6시~새벽 2시까지 전화 762-8786



QR코드를 찍으면  
취재 동영상 볼  
수 있습니다.





버텀라인

재즈 선율에 빠지다

100년이 넘는 일본식 건물에서 재즈의 선율이 흘러나온다. 일본식 가옥답게 천정이 높고 천정을 받치고 있는 나무뿔대들이 건물의 세월을 짐작케 한다. 버텀라인은 뉴욕의 유명한 음악클럽에서 이름을 따왔다. 뉴욕의 버텀라인은 작은 재즈클럽이지만 쟁쟁한 뮤지션들이 서던 무대였다. 인천에도 재즈를 연주하고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던 첫 주인장의 마음이 이름에 배어있다. 가게는 1983년 오픈했다. 당시만 해도 인천에서 음악이나 문학을 하는 멋쟁이들이 단골이었다.

허정선 대표는 “사람들이 재즈를 꽤 어려워하는 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듣는 음악들의 상당수가 재즈.”라며, “결코 재즈는 마니아들만 듣는 음악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녀는 재즈가 좋아 이곳을 드나들던 손님에서 94년 이곳을 인수해 주인이 됐다.

어스름한 저녁 은은한 조명 속에 재즈의 선율이 흐르면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차지하고 음악을 감상한다. LP판에서 나오는 따뜻하고 정겹고, 울림 좋은 재즈음악은 거칠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인다. 3천여 장의 LP 재즈판들이 벽면을 채우고 있다. 몇 년 만에 혹은 몇 달 만에 오는 단골들도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곳이 반갑고 소중하다. 소싯적 친구들과 들었던 재즈를 중년이 되어 다시 들으면서 ‘아 그래 이거야’, ‘음악이 어떻게 변해?’하며 추억 속으로 빠져든다. 낡은 LP들, 나무기둥, 색이 바랜 바닥들도 감성을 더 풍부하게 한다.

버텀라인은 금요일 저녁 9시가 되면 라이브 공연을 한다. 그간 김광민, 웅산, 윈터플레이 등 국내 실력있는 뮤지션들이 무대에 올랐다. 얼마 전에는 일본재즈의 거장 쿠미나다씨의 공연도 있었다. 라이브 공연때엔 입장료를 따로 받는다. 라이브 무대는 인천에 공연문화를 꽃피우기 위한 버텀라인의 열정의 결과다. 인천의 문화지킴이로 혁혁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운영시간 오후 6시~새벽 2시, 일요일 휴무 **전화** 766-8211



재즈는 결코  
마니아들만 듣는  
음악이 아니다

LP는 마른 용으로 잘 닦고  
LP판은 매일 붓으로 먼지를 털어내고  
바늘도 손질한다



흐르는 물

LP의 향수가 흐른다

‘흐르는 물’은 신포동에 자리잡은 LP판을 트는 가게로는 세 번째로 오래됐다. 1989년 문을 열었다. 이 건물도 100년이 넘는 일본 적산가옥이다. 나무계단을 오르다 보면 삐걱삐걱하는 소리조차 정겹다. 인천에서 교편을 잡았던 시인 조병화와 부인이 이집에 살았던 적이 있다. 시인은 지금 흐르는 물이 있는 2층에서 시를 썼고 그의 부인은 1층에서 산부인과를 열었다.

흐르는 물에선 5천여 장의 LP판에서 블루스, 가요, 포크송, 국악, 클래식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을 수 있다. 이곳은 LP음악카페 뿐만 아니라 소공연장과 문화사랑방 역할도 하고 있다. 신중현이 보컬로 활동했던 ‘애드포’의 드러머 김대환이 공연을 했고, 신촌블루스 정서용, 포크가수 정형근, 인천 통기타 그룹 ‘모두그린노래’ 등이 이곳 무대에서 시민들과 어우러졌다.

손님들은 옛 음악을 들으러 오는 중장년층이 많다. 20, 30년 전 그들의 추억을 담고 있는 음악과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다. 25년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안원섭씨는 LP를 닦는 일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는다. LP는 마른 용으로 잘 닦고 LP판은 매일 붓으로 먼지를 털어내고 바늘을 손질한다. 그래서 ‘흐르는 물’에서 듣는 LP의 음질은 특유의 깊고 매력적인 소리를 자랑한다.

손님들의 신청곡은 모두 LP판으로 소화한다. LP가 가지고 있는 따뜻한 힘, 어머니의 느낌이 사람들을 이곳으로 모여들게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주인장 안원섭씨는 시인이자 음악 마니아다. 그는 문학적 소양과 음악에 대한 감성으로 가게를 문화향기가 물씬 풍기는 공간으로 꾸며놓았다. 그는 등굣길 소나무가 고향을 지키듯이 흐르는 물이 신포동에 오래도록 남아 인천의 문화를 지키고 싶다는 바람을 밝힌다.

운영시간 오후 6시~새벽 2시, 일요일 휴무 **전화** 762-0076





잭슨빌(Jackson ville)

올드팝이 가슴을 적신다

LP가 주는 올림이 크고 따뜻한 음악을 듣고 싶다면 잭슨빌로 가보자. 신포동 주민자치센터 앞에 위치한 이곳은 귀에 익은 옛 팝송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매료시킨다. 주인 김성희씨도 어릴적부터 용돈을 모아 자신이 좋아하는 팝가수들의 ‘빽판’을 사서 모을 정도로 음악을 좋아했던 마니아였다.

가게는 크진 않지만 LP로 장르 구분없이 음악을 틀어주어 손님들의 반응이 좋다. 단골들은 자신들이 젊은날 들었던 음악을 들으며 가볍게 맥주 한잔하러 온다. 비틀즈, 아바, 마이클잭슨, 이글즈의 노래들이 흘러나온다. LP판 2천500장이 이 집의 보물이다.

잭슨빌은 1994년 신포시장에서 시작했다. 18년간 그쪽에서 장사를 하다 신포동 주민자치센터쪽으로 옮긴 지 1년이 조금 넘었다. 손님들은 음악을 들으면 20, 30년 전 학생시절로 돌아간 듯한 감성에 젖기도 하고 ‘이 노래를 몇 년 만에 듣는 거지’하고 세월의 빠름을 자조하기도 한다.

가게 벽에는 70년대 인기를 누렸던 영국의 헤비메탈 그룹 블랙 사바스(Black Sabbath)의 자켓 앨범 ‘Heaven and Hell’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 독특한 분위기를 낸다. 끝없는 자유를 추구했던 블랙 사바스의 정신을 보여준 앨범으로 가게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기를 바라는 뜻을 담았다.

신포동에 있는 음악카페들이 그렇듯 잭슨빌도 단골들이 없으면 가게를 유지할 수가 없다. 옛 추억을 찾아 신포동을 다시 찾듯 잭슨빌도 언제나 추억의 장소로 남아 있길 바란다.

운영시간 오후 5, 6시~새벽 2시, 일요일 휴무 전화 010-8335-2839



비틀즈, 아바, 마이클잭슨,  
이글즈의 노래들이  
흘러나온다



싸리재

LP 음악이 고택과 어우러지다

오랜 고택이 LP를 틀어 주는 커피숍으로 변신했다. 경동 인천기독병원 앞에 위치한 카페 ‘싸리재’는 원래 경기의료기라는 가게였다. 주인 박차영(64)씨는 오랫동안 의료 기점을 운영하다 가게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들자 얼마 전 겸업을 시작했다. 주인장은 고택의 정겹고 고즈넉한 이미지를 살리고, 커피마니아인 자신의 취미를 더해 카페를 열었다. 이 건물은 일제때인 1930년에 건축되었다. 카페 2층 천장에는 당시 상량식때 써놓은 글씨가 그대로 남아있다.

카페는 사람을 치유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아날로그 음악이 가득하다. 많은 LP를 보유하고 아날로그 기기와 진공관 앰프, 스피커들을 설치하여 그야말로 느낌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게 꾸며 놓았다.

LP판들은 카페의 이미지와 잘 맞는다. 비틀즈, 모차르트, 퀸, 베토벤 등 유명 뮤지션부터 클래식까지 희귀판이나 소장용 LP판도 볼 수 있다. 이곳은 LP판 뿐만 아니라 초판 발행된 문학지, 고서 등도 함께 전시하고 있어 문화와 역사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좋아 사색하고 독서하러 일부러 드르는 손님들도 많다. 주인 박차영씨도 LP를 좋아하고 디지털보다는 더딘 아날로그 문화를 사랑한다. 그도 젊은시절 음악이 좋아 클래식음반을 할부로 구입하고 턴테이블과 앰프를 세트로 구매해 LP판으로 음악을 들었던 마니아다.

아날로그가 주는 따뜻하고 은은한 감성을 느끼고 싶다면 싸리재에 한번 둘러보자. 고택이 주는 편안함과 아늑함, 옛 음악이 주는 따뜻함, 다독임을 느낄 수 있다.

운영시간 오전 10시~저녁 10시 전화 772-0470



아날로그적 기기와  
진공관 앰프, 스피커들에서  
나오는 따뜻하고  
감성적인 음악...

# 12월 12가지 행복

기부와 봉사로  
체감온도 높이기



겨울은 정말 춥고 조금의 가난도 뼈아프게 다가오지만, 달리 생각하면 가장 따뜻하고 부자가 되기 쉬운 계절입니다. 영하로 곤두박질한 기온 속에서도 항상 36.5도의 온기를 품고 사는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것에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시절일수록 추운 계절일수록, 나누어야 합니다. 하늘에서 풍성하게 쏟아지는 함박눈처럼 풀어도 풀어도 끝이 없는 어머니의 털실 타래처럼 사랑을 표현하세요. 이 겨울이 따뜻해질 겁니다.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정정호 자유사진가

따뜻  
기부

어느 계절을 가장 좋아하느냐고 물으면, 겨울이라고 답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살에는 추위에 옷가지며 난방 준비에 동장군이 오기 전부터 걱정이 느는 계절인데도 말이지요. 하지만 어쩌면 겨울은 가장 따뜻한 계절인지도 모릅니다. 영하로 곤두박질한 기온이 사람의 체온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봉사와 기부를 실천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진심이 담긴 따 한 방울이면 세상을 따스하게 물들일 수 있습니다.

## 버려진 개의 눈을 본 적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매년 죽어가는 유기동물은 공식적으로는 8만여 마리며, 비공식적으로는 그 몇 배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이유도 모른 채 죽음을 기다리는 맑은 눈망울들, 미안하여 차마 바라볼 수가 없다. 비영리동물단체인 한국반려동물사랑연합에는 안락사를 피해 온 90여 마리의 동물들이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 학대를 당해 안구가 터진 아이, 뼈가 으스러진 채 보호소에 버려진 아이 등 사연 하나하나가 가슴 아프다. “이들도 한때는 가족에게 사랑받던 반려동물이었습니다. 언제까지 반려동물이 귀엽고 사랑스럽지는 않습니다. 부디 늙고 병들어도 함께 하겠다는 생각으로 동물을 키워주세요.” 연약한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인간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길이다. 기억하자. 그들도 우리처럼 잔 눈물을 흘린다는 것을….

**함께하기** '단 하나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하여', 도움이 절실하다. 홈페이지([www.akca.co.kr](http://www.akca.co.kr))를 통해 회원가입하고, 언제든지 보호소로 방문해 맘 돌리며 봉사할 수 있다.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24-558140 문의 한국반려동물사랑연합 461-7004



## 마음까지 채우는 '사랑의 빵' 만들기

이른 아침, 차가운 공기를 데우는 고소한 냄새가 출출한 배를 쓸어내리게 한다. 인천 적십자사 주차장 한쪽에 자리 잡은 '빵 나눔터'에서 찹쌀을 치대고 미는 작업이 한창이다. 오늘의 메뉴는 빵이 아닌 영양찰떡, 몸에 좋은 재료를 아낌없이 넣어 끼니를 챙기기 힘든 이웃들의 한 끼 식사로 부족함이 없다. 전문 제빵사가 아닐지라도 설령설령 만드는 듯해도, 그네들의 손끝에서 구워져 나오는 빵은 그 맛이 깊다. 이웃을 향한 사랑과 정성이 담백 담겨있기 때문이다.

**함께하기** 따뜻한 마음을 가진 누구나 적십자사가 운영하는 '희망 빵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정성으로 구워 낸 빵은 취약계층에게 전해진다. **참여계좌** 우리은행 1005-480-092092 문의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555-9580, 2

## 자신을 내어 주는 연탄 같은 사랑

안도현 시인은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제 몸이 하얗게 으스러질 때까지 세상에 온기를 전하는 '연탄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 나지막한 집들이 서로를 기대어 있는 오래된 동네.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 연탄이 가득한 수레를 끌고 좁은 골목 위를 오른다. 구슬땀을 흘리며 내딛는 발걸음은 힘 들어도 경쾌하기만 하다. 귀한 땀방울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검댕이 묻은 그네들의 얼굴에서 내일의 희망을 본다.

**함께하기** '연탄은행'은 국내 31개 지역은 물론 해외까지 따뜻함을 전하고 있다. 홈페이지([www.yontanbank.or.kr](http://www.yontanbank.or.kr))에서 봉사 및 후원 신청을 한다. **후원계좌** 우체국 104026-01-001023 문의 인천연탄은행 761-7176





재능

기부

‘테레사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처럼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면 마음이 편해지고 몸에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반면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스크루지’처럼 자신만 아끼는 사람은 남을 돕는 사람보다 일찍 죽을 가능성이 두 배나 높다고 합니다. 꼭 돈이 있고 여유가 있어야 남을 도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남들보다 조금 뛰어난 재능과 진심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나누는 마음은, 한겨울 감기도 얼씬 못하게 하는 고마운 면역체입니다.

4

집은 물론 마음까지 고치는 손길

‘몸과 마음을 낚아 내 작은 집만 있다면...’.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누구에게도 간절한 소망일 수 있다. 시는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가구의 집을 단장해 주는 ‘사랑家꿈(사랑의 집고치기)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만능수리공’ 서비스를 통해 콘센트 수리, 전등 교체 등 작은 집안일에도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해왔다. 어렵지 않다. 내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갈 용기가 있다면 누구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

**함께하기** 인천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vt.incheon.go.kr)에서 봉사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incheonvoiuin@hanmail.net)로 제출한다. 문의 인천 자원봉사센터 423-0945

5

나눌수록 빛나는 재능

우리에게는 소소한 삶의 즐거움이 누군가에게는 사치일 수 있다. ‘돌로스재능봉사단’ 사람들은 작은 재능을 이웃들과 나누며 큰 기쁨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처음 어르신들의 발을 마사지하는 것으로 시작한 봉사는 도시락 배달, 미용, 집수리 등으로 커졌다. 요즘에는 사진관에 가기 힘든 어려운 이웃들에게 가족사진을 찍어 드린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는 때론 사진 속 모습이 마지막이 되기도 한다. 그렇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늘 정성을 다해 렌즈 안에 담아 드린다.

**함께하기** 봉사단 카페(cafe.daum.net/dulos1004)에 가입해 참여한다. 후원금은 무료급식에 쓰인다.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29-028216 문의 돌로스재능봉사단 010-256-5700

나의 지식이 누군가에게 희망을

‘누구나 오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가장 반짝이는 별을 따라 오면 되요. 그 찾던 곳, 작은자야학이랍니다’. 가장 빛나는 별을 따라 가면, 더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이 있다. 작은자야간학교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학생 50여 명이 밤을 밝히며 내일을 열어 가고 있다. 어머니, 아버지별의 학생들을 이끄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교편을 잡은 봉사자들은 웃음을 잃는 법이 없다. 학생들이 다시 배움의 길을 걷기까지 순탄치 않았을 시간을 헤아리기 때문이다. 늦은 밤 불 켜진 학교를 찾아 문을 두드리자. 나의 적은 지식이 배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삶의 빛이 될 수 있다.

**함께하기** 기본적인 한글 교육부터 중고등 검정고시 교육 봉사에 참여할 수 있다. 홈페이지(www.smallor.or.kr)를 통해 신청한다. 후원계좌 농협 149-01-212141 문의 작은자야간학교 435-4414



7

정성

기부

겨울은 허그(Hug)의 계절입니다.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서 하루에 적어도 네 번 정도 다정한 포옹이 필요하며, 그럭저럭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덟 번,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열여섯 번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안아주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 그 사람에게 안기는 것. 이 추운 겨울은 포옹의 힘을 확인하기에 더없이 좋은 계절입니다. 손수 만든 뜨개옷, 손수 지은 뜨끈한 집밥. 작은 정성만으로도 혹독하게 이 겨울을 나는 누군가를 꼭 껴안아 줄 수 있습니다.



두 손으로 따사로움을 짓다

매년 전 세계에는 태어나는 날 사망하는 신생아는 100만 명, 한 달 안에 목숨을 잃는 아기는 290만 명에 이른다. 항생제 몇 알,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없어서 꺼져가는 생명들이 더없이 안타깝다. 아기에게 털모자를 씌워 안는 ‘캥거루 케어(Kangaroo Care)’ 방식으로 신생아 사망률을 70% 낮출 수 있다. 털실과 바늘, 따뜻한 두 손만 있으면 누구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 한편 남구자원봉사센터가 운영하는 봉사 모임 ‘핸드&핸드 포그니 손뜨개방’도 한 올 한 올 손수 만든 목도리와 모자를 이웃에 전하며 세상에 사랑을 퍼트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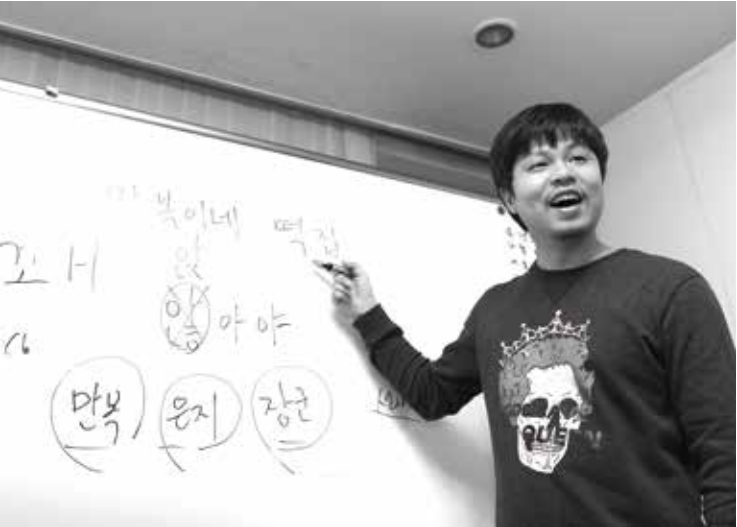
**함께하기** 세이브더칠드런(www.sc.or.kr)에 가입해 ‘신생아 살리기 모자 뜨기’ 캠페인에 참여 한다. 털모자는 우간다, 에티오피아, 타지키스탄 등의 신생아에게 전해진다. 문의 세이브더칠드런 02-6900-4400, 남구자원봉사센터 손뜨개 봉사단 참여는 1365 포탈시스템(1365.go.kr)에서 등록한다. 문의 인천남구자원봉사센터 880-4284

세상을 보는 눈이 되어 주지

눈이 아닌 소리와 손끝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목소리는 세상과의 아름다운 연결고리가 된다. 현재 인천에 있는 시각장애인은 1만3천여 명으로, 그들이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점자도서와 녹음도서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특수도서를 만들기 위해선 점역 전 텍스트를 입력하는 과정과 책의 내용을 육성으로 낭독해 테이프와 시디로 제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시각장애인들에게 있어 이러한 나눔은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바라보는 맑은 눈이 되어 준다. 지금 당신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웃에게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고 세상의 환한 빛을 전해 주자.

**함께하기** 입력봉사와 낭독봉사는 봉사 신청을 하고 사전 교육을 받은 후 참여할 수 있다. 문의 송암점자도서관 876-3504

8



# 9

## 사랑의 냄비를 끓게 합시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구세군의 종소리는 따스한 겨울의 시작을 알린다. 189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젊은 구세군 여 사관이 춥고 배고픈 난민들에게 따뜻한 스프를 끓여 주면서 시작된 빨간 자선냄비. 당시 구세군이 구호활동을 했지만 금세 음식이 바닥나고 돈도 떨어졌다. 그때 그녀는 냄비에 이렇게 써 붙이고 외쳤다. '이 사랑의 냄비를 끓게 합시다!'. 나누는 마음은 영하의 거리에서도 냄비를 끓게 해 따끈한 스프를 만들어 낸다.

**함께하기** 구세군 자선냄비([www.jasunnambi.or.kr](http://www.jasunnambi.or.kr))는 이달 31일까지 희망의 메신저가 되어 줄 봉사자를 모집한다. **후원 ARS** 060-700-9390 **후원계좌** 우리은행 142-159080-13-122 **문의** 구세군 자선냄비 1670-1908, 사랑의 열매는 내년 1월 31일까지 '희망 2015 나눔캠페인'을 실시한다. **후원 ARS** 060-700-1210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3-448757 **문의**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456-3333

## 나눔과 순환의 행복

아무리 추위가 몰아닥쳐도 나누는 마음에는 감기도 얼씬 못한다. 꼭 돈이 아니어도 좋다. 손때 묻은 물건을 기증하는 것은 '나눔과 순환'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낸다. 아이가 읽던 책이나 유행이 지나 입지 않던 옷가지도, 다른 이들에게는 절실한 물건일 수 있다. 먼저 쌓였던 물건이 새 주인을 만나 새 생명을 얻으니 이 또한 의미가 있다. 해마다 친환경 도시 송도국제도시에서 열리는 '송도굿마켓'은 좋은 사람들의 즐거운 보물창고다. 판매부스에서 모아진 기부금은 인천기아대책본부를 통해 이웃들을 위해 쓰인다. 한편 기증받은 물건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가게'는 연말에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아름다운가게 기증 보따리' 캠페인을 편다.

**함께하기** 굿마켓은 매년 봄과 가을 송도센트럴파크 일대에서 열린다. 송도IBD 블로그([songdoibd.tistory.com](http://songdoibd.tistory.com))를 통해 지원 신청한다. **문의** NSIC 02-501-4611. 아름다운가게([www.beautifulstore.org](http://www.beautifulstore.org))에서는 물건을 기증하거나 판매 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인천에는 노현점을 비롯해 모두 다섯 개 매장이 있다. **문의** 1577-1113

# 10



## 물품 현금 기부

참 이상한 일입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해에는 구세군 자선냄비가 더욱 그득 차곤 하니 말입니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해 11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인천 시내에 '사랑의 체감온도 탐'을 세워 희망나눔 캠페인을 벌인 결과, 당초 목표액을 훌쩍 넘겨 사랑의 수은주는 펄펄 끓는 128.9도를 기록했습니다. 정이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려울 때 유난히 남을 잘 돕습니다. 살림이 팍팍해 지갑에서 남을 도울 돈을 꺼내는 일이 어렵지 않을까 미리 걱정하면, 어김없이 자선냄비가 뜨겁게 끓었다는 가슴 훈훈한 소식을 들곤 합니다.

## 종이 모아 삶의 무게 덜어드리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차가운 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종종 마주치곤 한다. 하루 종일 거리를 헤매며 폐지를 주워도 하루에 버는 돈은 고작 2~3천원. 삶의 무게가 짓눌려 내려앉은 수레를 외로이 끌고 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뒷모습이 쓸쓸하다. 우리나라에서 폐지를 주워 생계를 꾸리는 노인은 17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굿페이퍼(종이나눔운동본부)는 종이를 모으고 나누며, 단지 따뜻한 집과 끼니 걱정 덜어주는 것이 전부인 어르신들의 소박한 바람을 현실 가까이 좀 더 드리려고 있다. 최근에는 수능을 마친 학생들이, 자신의 담방울이 스민 문제집과 교과서를 기부하는 '사랑의 책거리' 캠페인에 동참하며 사랑을 나눴다.

**함께하기** 종이를 기부하거나 후원하는 방법으로 동참할 수 있다. 문제집, 교과서, 신문지 등은 주로 폐지로 처리하고 도서는 중고서적으로 판매해 기금을 조성한다. **문의** 굿페이퍼 070-7804-0581



## 나눔도 진화한다, 디지털 기부

스마트폰 하나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시대. SNS를 통해 여러 사람이 기부금을 모으는 클라우드 펀드부터 앱이나 웹사이트, 이메일 등의 온라인 서비스로 결제하는 식으로 기부문화도 진화하였다. 루게릭병협회의 모금 운동에서 시작한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유명인들의 SNS로 널리 퍼지며 시들해 가던 기부문화의 불꽃을 당겼다. 디지털 기부는 매일 조금씩 모아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쉬운 기부 방법이기도 하다. 커피 한잔을 줄이고 가볍게 하는 기부, 적은 돈일 지라도 누군가에 용기를 주고 나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함께하기** '네이버 콩 기부'는 기부자와 도움이 필요한 공익단체를 연결한 국내 최초의 온라인 기부 포털. 해피빈([happybean.naver.com](http://happybean.naver.com))에서 현금에 해당하는 콩을 충전해 기부한다. 앱을 통한 스마트한 기부방법도 있다. 한 예로 사회적 기업이 만든 앱 '빅워크'를 켜고 걸으면, 10m에 1원씩 기부금을 적립해 걷지 못하는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



# GIVE

# 11



## 도움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행복나눔 인천'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찾아 도움을 주는 복지 시스템이다.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IT기술을 활용한 지역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해,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있다면 누구나 복지포털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군·구의 희망복지지원단, 동사무소, 민간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이와 함께 '행복나눔 인천' 시스템을 활용해 시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알려주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 사전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행복나눔 인천 [www.happyincheon.or.kr](http://www.happyincheon.or.kr),  
문의 1899-5878



## 배다리, 그곳의 피사체는 ‘흑백시간’

배다리 현책방거리는 ‘출사족’의 단골 코스다. 묵은 빛과 낡은 색이 그들을 감성으로 이끈다. 인천의 오랜 시간이 켜켜이 스며든 공간은 못사람들에게 수없이 찍혔다. 이제 이 거리는 찍히는 피사체에서 찍고 전시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으로 서서히 변신하고 있다.

글·사진 김민영 자유기고가



세상에서 비켜난 곳은 시간도 더디 가는 듯하다. 하긴 이미 먹을 만큼 먹은 시간 아닌가. 지나긴 세월에 일 년이 더 보태진들 무슨 대수인가. 이곳은 집도 높고 거리도 넓었다. 시간으로 주름진 이곳에서 뭘 해도 모든 게 슬로우 비디오처럼 보인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요즘 배다리 현책방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적막하다. 늦가을 오후 늘어선 그림자만이 시간의 흐름을 알려줄 뿐이다. 이 거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침묵하며 우리와 함께 시계바늘을 돌린다. 배다리 현책방거리는 한때 청계천과 어깨를 견 줄 정도로 유명했다. 6·25전쟁 직후 리어카와 노점상들이 고물로나온 현책을 팔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형성됐다. 얼마 전 대하소설 ‘토지’의 작가 박경리 선생의 흔적이 이곳에서 발견되면서 새롭게 주목 받고 있다. 아직은 토막 같은 ‘팩트’에 불과하지만 선생은 근처에 신접살림을 차렸고 노점 거리에 나와 현책 구경을 즐겼으며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예 직접 현책방을 운영했던 ‘스토리’가 전해져 온다. 언제부턴가 책방은 하나둘 문을 닫으며 이제는 현책방 거리라는 타이틀이 조금은 무색해졌다. 대신 새로운 문화공간이 하나둘 등지를 틀며 여전히 사람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다. 그 중심에 사진이 있다. 사진전문갤러리, 사진카페 그리고 마을사진관 등 이곳에서는 사진을 찍고 전시하고 그리고 이야기한다.

### 찰칵1. 사진공간 배다리 포토갤러리

현책방임을 알리는 널찍한 간판 사이로 등불처럼 둥근 간판이 얼굴을 내밀었다. 사진공간 배다리 포토갤러리. 간판으로 내건 이름처럼 이곳은 사진전용 갤러리다. 인적이 드문 거리에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면 사진공간에 빛이 든다. 불빛을 따라 사람들이 모인다. 매주 화요일 저녁 열리는 사진 인문학 강의를 듣기 위해서다. 이날 이영옥 교수의 ‘미술사와 사진’ 강의가 2층 갤러리에서 진행되었다. 10평 남짓 작은 갤러리에서는 사진 전시뿐만 아니라 사진을 주제로 한 다양한 강좌가 열리고 있다. 애초 출사족들의 단골 장소였지만 본격적으로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거리에서 뭉치게 된 것은 2년 반 전

이 포토갤러리가 생기면서부터다. 작은 갤러리를 만들어 간판을 붙인 이는 이상봉 관장이다. 갤러리 문을 열자마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인천에서 사진전용 갤러리로서는 처음인데다 그 첫 전시가 해광학교 시각장애학생들의 작품이었기 때문이다. 해광학교 교사인 그는 사진으로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전했다. 어둠 속에서 감각으로 찍은 일상과 세상에 대한 기록을 작품으로 전시한 이후 이 작은 갤러리는 수많은 작가의 다양한 사진들을 세상에 내놓았다.

“학생들과 사진을 공부하면서 무엇인가 부족한 것을 느꼈습니다. 사진을 배우고 전시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활동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갤러리를 만들었다. 운영의 버거움은 지역과 사진이라는 것에 대한 가치에서 위안을 받고 있다.





그는 끊임없이 인천 이야기를 사진으로 풀어내려고 한다. 회원들과 2013년에는 재개발지역을 찍어 전시하고 책도 냈다. 올해는 인천의 해안선을 따라 곳곳을 기록했고 그 것들을 전시하고 화보집으로 펴낼 생각이다. 그에게 배다리는 ‘사람’이 있는 곳이다. 겨울을 이겨내고 봄을 기다리는 듯 조용하지만 끊임없이 꿈틀거리는 배다리의 힘은 강했다. 그 곳에서 그는 사진으로 새로운 명품 배다리 거리를 만들 꿈을 꾸고 있다.

**찰각2. 카페 사진방 배다리**

커피향이 배다리현책방거리에 은은하게 퍼진다. 먼저 후각으로 유인하고 시선으로 잡아 둔다. 카페 ‘사진방 배다리’ 회색 시멘트벽에는 사진 몇 장이 전시된 듯, 인테리어 소품인 듯 걸려 있다. 방금 뽑아 놓은 듯한 사진 속 사람들이 환하게 웃으며 줄에 걸려있다. 사진 카페답게 책꽂이에는 사진 관련 책이 꽂혀 있고 테이블마다 사진 전문 잡지가 놓여 있다. 이 집 소품의 압권은 주방 입구에 걸려 있는 커다란 칠판. ‘사진방 자유이용권’이라 적힌 칠판에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있고 그 옆에 ‘정(正)’자가 분필로 써 있다. 이곳에 커피를 맡겨놓은 고객들이다. 이곳에서는 미리 한꺼번에 커피

값을 내고 마신다. 한잔 마실 때마다 확이 하나씩 더해진다. 커피 값이 없을 땐 칠판에 적힌 지인의 이름을 지목하고 맡겨 놓은 커피를 마셔도 된다. 물론 커피값 주인의 허가를 맡아야 하지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문을 열고 들어선다. 그들은 막 나온 사진집을 펼쳐들고 그 현장의 추억을 곱씹는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현장을 카메라에 담으며 재능기부를 했던 사진방 회원들이다. 이곳 카페는 지난 4월 문을 열었다. 윗층 갤러리 이상봉 관장이 주인이다.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랑방 공간이 필요했다. 마침 갤러리 아래층에 공간이 나왔고 그는 자동차 살 돈으로 공간을 마련했다. 회원들이 봉사하고 나누고 보탬 끝에 누구나 부담 없이 들어와 쉬기 좋은 곳을 만들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회원들이 돌아가며 커피를 내린다. “여기선 제 이름을 대고 커피 드셔도 됩니다.” 이 관장의 말에 바로 옆에 있는 회원이 거둔다. “제 이름으로 드셔도 됩니다.” “모든 게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이날 갤러리에서는 17인의 사진작품으로 꾸민 ‘일상, 그리고 풍경’전 오프닝이 있었다. 그들은 카페로 내려와 서로 자축했다. 사진을 중심에 두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표정이 한 장의 사진처럼 멈춰서 저장된다.



반서터 찰각. **현책방 옆 동네사진관**  
배다리 현책방에는 전국 팔도에서 모인 책들이 수북이 쌓여 있다. 그 책들 중에서 오래된 사진집이나 도록을 찾아 볼 수 있다. 어느 작가의 전시회 때 발행되었을 그 책들은 이제 잊혀진 작가와 전시회를 추억한다. 한미서점 등에는 사진 관련 전문서적도 함께 모아놓고 있다. 아벨서점 옆에는 개업한 지 40년 넘은 진짜 동네사진관 ‘고원사진관’이 있다.



**찰각3. 마을사진관 다행**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다. 시처럼 자세히 그리고 천천히 오래 보아야 예쁜 곳이 배다리다. 이곳은 소박한 꽃처럼 일상이 잔잔하다. 그 소박함의 진가를 알아본 마을사진관 ‘다행’은 기분 좋게 이곳에 발이 묶였다. 그리고 마을사람들의 일상을 렌즈에 담으며 순간을 공유하고 있다. 사진관을 꾸려가는 이는 강(江) 작가이다. 물이 모여 바다로 가기 전 잠시 거치는 강의 뜻으로 살고 싶은 그는 2007년 이 곳에 들어왔다. 공공미술을 통한 지역환경개선사업 프로젝트와 인연을 맺은 그는 인권영화제의 영상과 사진을 찍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2009년 지역공동체 창작공방 ‘다행하다’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2010년 이곳에 마을사진관을 열었다. ‘사진을 찍으니까, 이야기하는 것 좋아하니까’로 시작한 마을 기록은 한 페이지의 사진이야기로 담겼다. 그것을 몇 십장 뽑아서 지인들과 나눠봤다, 그것이 ‘다행’으로 시작해 ‘우각로신보’를 거쳐 ‘배다리신보’로 이어지게 되었다. 마을 신문 ‘배다리신보’는 소소한 일상을 비롯해 마을의 크고 작은 변화를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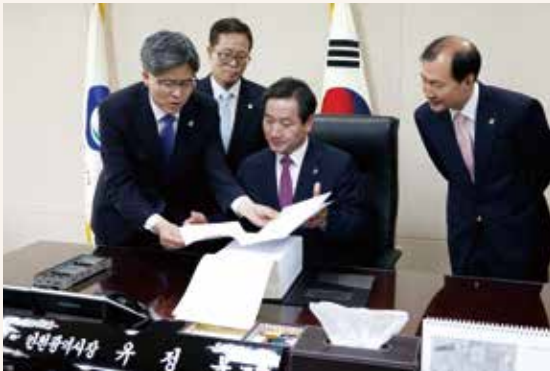
그는 사진을 찍을 때 장소와 사람들을 ‘존중’하며 찍는다. 사진은 사라질지도 모르는 것들에 대한 기록 그리고 존중이라고 말한다. 사진관 선반에 놓인 빛바랜 필름 박스 속 필름이 녹아 내린 시간만큼 그의 시간이 마을에서 녹았다. “배다리요?” 그에게 배다리는 따뜻한 쉼터다. 낯선 길에 가다가 하늘 넓은 동네가 그 앞에 툭 떨어진 곳, 바로 그곳이 배다리다. 오늘도 강은 배다리에서 마을 사람들의 민낯을 찍으며 기록하고 소통하고 있다.



## 새 비전, 큰 꿈 안고 시민과 함께 달렸다

2014년은 오래도록 기억할 만한 해다. 메가 이벤트인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를 치르면서 인천의 인지도를 널리 알렸으며 시민들은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7월엔 큰 변화가 있었다. 민선 6기가 새로 출범했고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가 새로운 비전과 목표가 되었다. 신년 초 신발끈을 조여매며, 올 한해도 후해 없이 달리겠다는 의지와 결의를 마무리하고 다시 출발선에 설 때가 됐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 민선 6기 출범

지난 7월 '희망인천'의 닷이 힘차게 올랐다. 민선 6기 인천을 이끌어 갈 유정복 시장이 지난 7월 1일 취임했다. 유 시장의 취임으로 지역사회는 힘 있는 시장, 지역 출신 첫 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자못 컸다. 유시장은 위대한 인천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 △인천시 종합경영진단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성공적 개최 △입체교통망 완성과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통한 도시가치 향상 △시민이 행복한 도시조성 △공직사회의 혁신과 시민화합 시대 개막을 약속했다. 시는 민선 6기 시정 핵심 슬로건을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로 정했다. 이는 시정의 궁극적 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다. 시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작은 행복을 느끼게 하고자 투자유치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을 꾀하고 시민 생활의 질과 밀접한 교육, 복지, 문화, 관광, 체육 인프라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인천지역 무형문화재들이 보유한 재능을 전수하고, 이들의 예술 활동을 볼 수 있는 공간이다. 시는 209여억 원을 들여 남구 매소홀로에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지어 지난 8월 22일 문을 열었다. 교육관에는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인 서해안 배연신궁과 대동궁(82-나호), 소놀음궁(90호), 궁시장(47호), 화각장(109호) 기능 보유자와 4개 보전단체들이 입주했다. 옛 사대부 가문의 여인들이 이웃과 친지를 초청해 차를 나눠 마실 때의 예절인 규방다례보존회 등 시가 지정한 23개 무형문화재와 보전단체도 입주했다.

### 강력한 재정개혁 추진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을 부자도시로 만드는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당장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추경예산 약 3천500억원을 삭감했다. 부채 관리를 위해 2018년까지는 신규 지방채 발행도 중지하고 잉여금 발생 때는 조기상환으로 채무 규모를 줄일 계획이다. 시는 채무 상환 재원을 마련하고자 세출 구조조정, 신규 세원 발굴, 고금리 채무의 저금리 전환 등 부채 감축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수립하는 등 부채 해소에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2014 인천AG, 2014 인천APG,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올해 인천은 스포츠행사로 무르익었다. 지난 5월 24일에 열린 스포츠 꿈나무들의 축제인 '전국소년체육대회'부터 9월 19일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10월 18일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11월 4일 전국장애인체육대회까지 국내외 메가 스포츠이벤트가 열려 인천의 국제적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 특히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45억 아시아인의 축제였다. '평화의 물결, 아시아의 미래'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대회 규모만도 45개국 3만여 명이 참여했다. 대회는 국민적 관심 속에서 별다른 사고없이 치러져 안전한 대회로 마무리됐다. 또 북한의 참여로 OCA 45개 회원국 전체가 참가하는 '퍼펙트대회'로 친환경대회 국제인증까지 받았다.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는 '불가능이 우리를 이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장애인들이 그간 갖고 있던 기량을 보여주어 전 세계에 감동을 선사했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11월 4일부터 8일까지 인천시 일원에서 성황리에 치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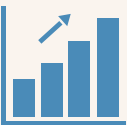
### GCF 재원공여 시작

송도에 위치한 GCF사무국이 출범한 지 어느덧 일주년이 되고 있다. GCF는 올해 세 차례 이사회를 열고 그 동안 논의되었던 초기재원 조성에 필요한 핵심사항들을 마무리하며 재원 운영체계를 다졌다. 이와 동시에 GCF는 세 차례의 공여국 회의, 유엔 기후정상회의(9월 뉴욕), G20회의(11월 호주 브리즈번) 등을 통해 선진국 등으로부터 재원공여 약속을 이끌어 냈다. 11월 20일 현재 미국 30억 달러, 일본 15억 달러, 독일과 프랑스 각각 10억 달러, 스웨덴 5억 5천만 달러, 한국과 스위스가 각각 1억 달러 등 총 약 75억 달러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이제 GCF는 지속적으로 추가 초기재원을 조성하면서 내년부터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사업을 착수한다. GCF는 본격적인 활동과 나름의 성과를 거두면서 사무국의 조직을 정비하고 인력을 확충해 가며 틀을 갖추고 있다. GCF가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인천시도 유치도시로서 녹색기후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또 국내 관련 산업의 발전연계 가능성을 모색하고 사무국내 지역 프로그램 참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1월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인천녹색기후포럼을 출범시켜 민관이 함께 하는 거버넌스로 향후 녹색기후 분야에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 인천발 KTX노선 추진

인천시민이 KTX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울이나 광명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큰 불편이 있다. 서울로 이동할 경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광명역의 경우 대중교통이 불편해 인천시민들은 그동안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인천시는 서울을 중심으로 짜여진 교통망을 개선하고 인천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지원하고자 인천발 KTX 노선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발 KTX는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 부근에서 공사 중인 수인선(수원~인천)과 기존 경부고속철도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인천발 KTX가 실현되면 수인선을 타고 직접 부산이나 광주로 갈 수 있어 운행거리 단축 및 소요시간이 대폭 빨라질 예정이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로 진행하며 시의 재정부담은 전혀 없다.



### 행복한 시민 실현 ‘10대 핵심과제’ 발표

인천시는 민선 6기 시정목표인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을 실현할 10대 핵심과제를 내놓았다. 10대 핵심과제는 △인천비전 2050 미래발전계획 수립 △재정개혁 추진 △8대 전략사업 육성 △요우커 마케팅 △인천중심의 교통개선 프로젝트 시행 △인천경제자유구역 규제완화 사업지구 추진 △지속가능한 원도심 성장동력 창출 △살고싶은 녹색환경 도시조성 △글로벌 교육도시로의 도약 △강화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다. 2050 미래발전계획은 민선 6기 비전인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2050년을 장기적 발전의 지향점으로 설정하여 인천의 경쟁력과 가치를 담은 장기 청사진이다. 8대 전략사업은 미래 인천의 먹거리나 다름없다. 인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공정비, 자동차부품, 로봇, 바이오, 관광, 뷰티, 서비스, 해양산업이다.

### 국내 최고 ‘동북아무역트레이드타워’ 완공

높이 305m로 국내 최고층 건물인 동북아무역트레이드 타워(NEATT)가 지난 6월 완공됐다. 착공한 지 8년 만이다. 대우인태내셔널 사옥인 9~21층을 포함해 무역타워 2~33층에는 국내·외기업 사무실과 상업시설 등이, 36~37층은 연회장, 레스토랑 등 호텔 부대시설이 38~64층은 423실을 갖춘 레지던스 호텔인 오크프리미어 호텔이 들어와 있다. 65층은 전망대로 쓰인다. 오크프리미어 호텔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기간 중 패밀리 호텔로 선정되어 OCA임원진 등의 숙소로 사용됐고 아시아경기대회의 콘트를 역할을 했다. NEATT는 비즈니스 활동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24시간 지원하는 세계적 수준의 업무용 빌딩으로 한국적 곡선을 살려 직사각형이 아닌 나선형으로 비틀어진 외관이 특징이다.

### 미국 조지메이슨·유타대, 벨기에 겐트대 개교

송도글로벌캠퍼스는 외국대학의 경쟁력 있는 학과를 한데 모아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갖추고 종합대학 형태를 이루는 국내 최초의 교육모델이다. 2012년 뉴욕주립대가 오픈하여 대학원과 학부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미국 조지메이슨, 9월에는 미국 유타대, 벨기에의 겐트대가 개교했다. 3월 개교한 조지메이슨은 미국 내에서 법학분야 대학순위 30위, 공공행정분야 순위 24위에 오른 세계 유수의 대학이다. 올해는 경제·경영학과에 80명씩 학부생들을 모집했고, 2015년에는 국제학도가 오픈한다. 커리큘럼은 1, 2학년은 송도에서 일반교양, 기초전공, 중급, 선택, 교양과목을 공부하고, 3학년은 미국 본교에서 일반교양과 기초전공 과목을 이수한다. 4학년 과정은 다시 송도에서 공부한 후 학위를 수여받는다. 벨기에 겐트대와 미국 유타대는 지난 9월 첫 학생을 모집했다. 겐트대는 분자생명공학, 환경공학, 식품공학과를 개설했다. 유타대는 공중보건학 대학원 과정을 비롯하여 심리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등의 과정에 총 275명의 학생이 들어와 공부하고 있다.



### 청라국제도시 내 하나금융타운 조성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내 하나금융타운이 조성된다. 하나금융타운 조성은 국내 최대 금융그룹 중 하나인 하나금융그룹이 IT센터 전문건설체인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DPR사와 힘을 합해 하나금융그룹 내 IT센터기능을 한곳에 모으는 사업이다. 하나금융HQ 이전, 인재개발원, 금융연구소에 이르는 그룹 전체의 금융연관기능의 집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7월 초 인천시, LH공사, 하나금융그룹간 사업협약 및 토지매매계약을 끝냈고 내년에 착공한다. 하나금융그룹은 2017년 준공과 함께 7천 명 직원이 상주함은 물론 인천지역 내 고용창출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시는 하나금융타운 조성사업이 그동안 저조했던 청라국제도시에 대한 해외 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인천 화장품 공동브랜드 ‘어울’ 출시

인천지역 화장품 제조사가 합작해 개발한 화장품 ‘어울(ooul)’이 나왔다. 어울은 ‘함께 어우러지다, 진심을 담다’를 뜻하는 이름이다. 지역 10개 화장품 제조사가 합작해 24개 종류의 화장품을 개발했다. 시는 중국 수출을 위해 홍보 영상을 중국 58개 지역에 내보내고 알리바바 티몰, Qoo10 등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할 계획이다. 오프라인 시장 확대를 위해 중국 현지에 휴띠고 매장을 개점할 계획도 세웠다. 시는 미용 사업을 시의 8대 전략사업 중 하나로 지정해 집중 육성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2015 프레지던츠컵 유치 확정

2015년 10월 6일부터 11일까지 송도국제도시에서 개최되는 프레지던츠컵이 지난 9월 29일 송도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에서 열린 미디어데이를 시작으로 킥오프됐다. 미국팀과 세계연합팀간 대항전인 프레지던츠컵은 미국-유럽간 대륙 대항전인 라이더컵과 더불어 세계 남자골프를 대표하는 양대 이벤트로 성장하고 있다. 한국 팬들 입장에서 프레지던츠컵은 미국PGA투어의 ‘진수’를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전 세계 골프투어 중 가장 진화된 조직인 미국PGA투어의 다양한 노하우가 녹아든 이벤트이기 때문이다. 대회 장소로 쓰일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은 지금 코스 개조작업이 한창이다. 이 작업에는 미국PGA투어의 전문가 2명과 이 코스를 설계한 잭 니클라우스 디자인 회사의 직원 2명 등 총 4명이 투입됐다. 한편 유정복 시장은 지난달 5일 송도 오코우드 호텔에서 ‘2015 프레지던츠컵’ 골프대회 홍보 기자회견을 팀 핀 챔 PGA위원장과 최경주 선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 인천공항철도 청라역 개통

공항철도 11번째 역인 청라국제도시역이 지난 6월 21일 개통됐다. 청라역은 검암역과 운서역 사이, 인천시 서구 경서동 신공항고속도로 북인천나들목 인근에 지어졌다. 청라역 인근에는 해돋이 명소인 정서진과 유람선이 있는 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이 있다. 서울~청라역 운임은 1천650원이다. 청라역의 개통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외롭지만 가야 할 ‘몸짓’의 길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김보섭 자유사진가



갑작스레 닥친 한파가 어깨를 움츠러들게 했지만, 극장 안은 예술에서 파생되는 힘과 에너지로 충만하다. 아직 배우가 등장하지 않은 빈 무대에서 벌써 느껴지는 힘이다. 관객들의 얼굴에 도는 기대감. 무대 위에서 인생에서도, 언제나 연극은 그렇게 시작된다.

인천연극 역사가 시작되는 페이지에는 ‘돌체’가 있었다. 1979년, 중구 경동의 차디찬 얼음 공장에서 피어난 뜨거운 예술의 혼은 지금까지도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돌체가 예술의 꽃을 활짝 피운 건, 1983년 마임리스트 최규호와 연극배우 박상숙(55)이 극장을 인수하면서 부터다. 부부는 좁고 축축한 반지하 극장에서 ‘겨울 나그네’, ‘춤추는 어릿광대’,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등 주옥같은 작품을 선보이며 인천연극의 자존심을 지켜 왔다. 그 시절 인천에는 10여 개의 극단이 창단하면서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한 뿌리를 이룰 만큼 전성기를 누렸다. 그 중심에 바로 돌체가 있었다. 하지만 80년대 후반부터 관객과 극단의 외면을 받으며 극장이 하나둘 사라져갔고 90년대에는 대부분 문을 닫기에 이른다. 돌체 역시 폐관 위기에 놓였으나, 지난 2007년 남구의 지원을 받아 지상 4층 규모의 복합공연장 ‘작은극장 돌체’로 다시 태어났다. 하지만 ‘내 것’이 아니었고 한때 극단 식구들과 거리로 나앉을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인천에서 30여 년을 가난한 연극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극단과 극장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외지인이라는 편견에 싸우고 평생을 배고픔과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술은 계속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공연 콘텐츠와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녀의 입술에서 한숨이 열게 새어 나온다. 박상숙은 남편과 함께 1984년 극단 ‘마임’을 창단해 당시 우리나라에 생소했던 마임을 알리고 훗날 마임에 풍자, 마술, 어릿광대 등을 버무린 클라운마임을 창시해 ‘국제 클라운 마임축제’로 꽃피웠다. 극단의 수십 년 역사가 녹아내린 축제는 올해로 19회를 맞으며 세계 유명 마임이스트들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행사로 성장했다. 하지만 황량한 땅 위에 예술의 씨앗을 뿌리고 꽃을 피우기까지, 그 길은 멀고도 험난했다.

“언제부터인가 사는 게 곧 예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두려울 것도, 못할 것도 없습니다. 돌체는 바로 나 자신이니깐요.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자리에서 버티는 이유이자, 내가 지탱하는 힘입니다.”

한 마디 말이 아닌 몸짓으로 다가오는 마임의 세계. 무대 위 무언의 몸짓이 말을 걸고 연기자와 눈빛이 통하는 순간, 관객은 우리가 알지 못하던 세계로 빨려 들어간다. 그런 면에서 배우 박상숙, 그녀는 타고난 배우이자, 마임이스트다. 그녀의 눈빛은 무대를 넘어 세상을 관통할 만큼, 여전히 살아서 빛나고 있기에.



QR코드를 찍으면  
취재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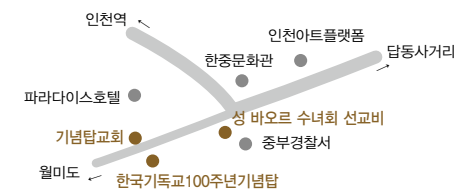




## 1885년 부활절 첫발, 이 땅의 ‘성탄<sup>聖誕</sup>’을 밝히다

황무지 같았던 땅에 한 줄기 햇살이 비추었다. 새로운 바람이 불고, 듣지 못한 이야기가 전해졌다. 130년 전, 겨울의 날 선 찬바람을 비집고 찾아온 봄은 새로운 씨앗을 틔우기 좋은 날이었다. 제물포에서 꽃 피운 흙씨는 조선 땅으로 빠르게 퍼져 나갔다. 2014년 12월, 추위를 파고드는 성탄의 캐롤이 그날의 기억을 더듬는다.

글·사진 차지는 자유기교가



### 한국 교회의 어머니 땅

거친 파도를 헤치며, 작은 배 한 척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 생명을 건 항해의 종착지는 조선 땅 작은 포구 제물포. 한 청년은 일본에서 구한 조선어 ‘마가복음서’를 두 손에 꼭 쥐었다. 낯선 땅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다른 청년은 임신한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서로를 격려했다. 새로운 땅으로 향하는 길, 두려움보다는 사역에 대한 다짐과 의지가 작은 배 안에 가득했다.



1885년 4월 5일. 그렇게 그들은 제물포에 닿았다. 햇살이 가득한 오후 3시. 그날은 조선 땅에서 처음 맞는 부활절이었다. 포구는 고요했다. 작은 배 몇 척만이 일렁이며 바위에 툭툭 부대끼는 소리를 낼 뿐이었다. 그들을 맞아주는 것은 이름 모를 바다 새와 거대한 바위 돌뿐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와 함께 이 땅에 왔다. 그때부터였다. 이 땅 기독교(개신교)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미국을 떠나 일본을 거쳐 들어온 세 사람은 아펜젤러 부부와 언더우드였다. 조선에 공식적으로 들어온 첫 선교사들이다. 당시 조선은 갑신정변으로 정세가 불안한 상황이었다. 그런 와중에 그들은 교육, 문화, 의료 등의 영역에서 활동하며 복음과 개화에 앞장섰다.

감리교 목사였던 아펜젤러는 아내 D.엘라와 함께 인천 내리(내동)의 한 초가집에 머물며 선교를 시작했다. 그해 7월 증기선을 통해 오르간(풍금)이 도착했다. 아펜젤러 부부는 오르간 반주에 맞춰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땅에서의 첫 공식 예배를 드렸다. 부부의 예배는 밀알이 되어 인천내리교회로 이어져 꽃을 피우고 후에 조선 개신교의 열매를 맺게 된다. 내리교회가 ‘한국 교회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념탑과 기념탑 교회

기독교의 씨앗이 인천에 처음 뿌려질 수 있었던 것은 개항의 역사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파라다이스(옛 올림픽포스)호텔이 자리한 언덕 바로 밑은 바닷가였다. 그곳으로 바깥 세계의 문물과 사람이 들어 왔다. 선교사들도 그곳에 첫 발을 내디뎠다. 바다와 포구는 사라졌지만 그들이 첫 발을 디딘 자리에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탑’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1986년 선교 100주년을 맞아 아펜젤러 부부와 언더우드 선교사를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 기념탑은 한국 교회 전통적인 종의 형태를 본떠 만들었으며 세 선교사의 청동상과 3개의 탑신, 6면의 부조 및 원형의 석조 계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3인의 청동상 밑엔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내리면서 드렸던 기도문을 새겨 넣었다.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탑’을 바라보는 푸른 지붕의 3층 건물이 있다. 박철호 목사가 세운 ‘기념탑교회’다. 이 건

물은 원래 ‘객주(客主)집’이었다. 부두 화물이나 생선의 매매를 주선하거나 위탁 판매를 하던 집이다. 나중에는 잠시 다다미가 깔린 공동주택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 집은 일제 대정(大正)시대에 지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대정시대는 1911년부터 1924년까지다. 길면 100년 짧아도 90년 된 건물이다. 얼마 전까지 5대에 걸쳐 살아온 이 집은 겉으로 보기에 콘크리트 건물 같은데 실은 목조건물이다. 벽은 대나무로 엮고 짚을 섞은 진흙을 엉겨 만들었다. 1992년 작은 화재가 난 후 슬레이트벽을 덮으면서 콘크리트 건물처럼 보였다.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 지난해 6월부터 기념탑교회가 자리 잡은 것이다. 박 목사가 사재를 털어 지금의 자리에 교회를 세운 것은 이 자리가 가진 ‘역사성’ 때문이다. 인천에서 나고 자란 그는 향토 역사에 유독 관심이 많았다. 목회를 하기 전엔 ‘숭의교회 75년사’, ‘내리교회 110년사’ 등의 초기 부분 집필에도 참가했다. 교회사를 집필하다보니 한국의 선교



1888년 7월 22일  
네 명의 샬트르 성 바오르 수녀들은  
제물포항에 도착해  
‘순교의 땅’ 조선에서 처음으로  
수도생활을 시작했다.



역사에 대해 더욱 깊게 공부하고 싶었다. 인하대학교 대학원 근현대사 박사과정을 밟았다. 그리고 그가 찾은 역사의 현장이 바로 여기, ‘기념탑교회’의 자리다.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탑이 역사성을 살려 세워진 것이잖아요. 당시 (기념탑을 가리키며) 저 곳이 바다였을 테니, 세 선교사가 첫 발을 디딘 땅은 바로 이 교회가 있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시작이 된 장소에서, 그들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의미로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죠.” 현재 기념탑교회는 한미영 담임목사가 이끌어가고 있다. 박 목사는 지난 9월 목사직을 사임하고 교회를 관리하는 교인으로 남았다. 교회 안은 그날의 현장이 파노라마처럼 고스란히 펼쳐진다. 당시 세 선교사를 맞이했던 큰 바위는 건물 1층 내부에 그대로 남아있다. 개항기 인천의 모습을 담긴 지도는 당시의 현장을 실감있게 보여준다. 벽면을 따라 선교자의 이름과 한국 선교의 역사가 이어진다. 박 목사는 “교회 건물 2층에 꾸민 자신의 살림집은 ‘선교사 기념관’으로 꾸밀 예정.”이라고 말한다. 이제 한국의 선교사가 오히려 해외에 나가는 이 시점에서 선배 선교사들의 희생이 잊혀질까 아쉬운 마음에서다. “요즘은 크리스마스가 조용하더라고요. 본질을 잊고 지내는 것 같아 교인으로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날, 어려운 이웃과 나누던 따뜻한 마음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탑 부근에는 또 다른 선교의 흔적이 남아 있다. 중부경찰서 정문 옆 화단 안에는 샬트르 성 바오르 수녀회 한국설립 120주년을 맞아 첫 선교 수녀들이 도착한 장소에 2007년 7월 22일 첫 선교수녀 도착지 기념비를 세웠다. 이 비에 의하면 네 명의 샬트르 성 바오르 수녀들은 1888년 7월 22일 제물포항에 도착해 ‘순교의 땅’ 조선에서 처음으로 수도생활을 시작했다. 이제 올 한 해도 달력 한 장이 남아있다. 붉게 새겨진 25일. 예수의 복음이 전해진 그날을 되새겨 보는 것은 어떨까. 예수의 사랑을 품고 조선 땅에 발 디딘 세 사람은 아직 그 자리에 숨 쉬고 있다.



## 올 연말엔 ‘감성’을 선물하세요

연말, 몸과 마음이 왠지 분주해 진다. 한 해를 돌아보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고, 뭔가 근사한 새해의 계획도 미리 생각해 보고,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연말을 마무리하는 멋진 추억도 만들어야 할 것만 같다. 하지만 이런 분주한 마음과 달력에 빼곡하게 채워지기 마련인 송년모임을 뒤로하고, 2014년 겨울 한파를 녹일 따뜻한 공연 선물을 먼저 계획해 보면 어떨까? 올 겨울, 당신의 잠자는 감성을 콧속 깨워줄만한 멋진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다.

글 김윤경 I-View편집위원



### 내 맘대로 즐기는 풍성한 콘서트

연말이면 기대하게 되는 가수들의 대형 콘서트, 유독 올해는 인천에서 많은 가수들의 콘서트가 줄줄이 펼쳐진다. 때론 감미롭고 로맨틱하게, 때로는 유쾌하고 신나게 즐길 수 있는 공연에 빠져들다 보면 한해의 스트레스를 떨쳐내고 새로운 에너지를 품게 된다.

이달 6일 삼산월드체육관에서의 이승철 콘서트와 선학체육관에서의 심수봉 콘서트를 시작으로 14일 서구문화회관에서는 변진섭 콘서트, 19일 삼산월드체육관에서는 에픽하이의 콘서트가 열린다. 또 24일에는 블락비, 대국남아, 타히티, 에이젝스가 함께하는 레드크리스마스 콘서트가 남동체육관에서, 31일에는 박효신 콘서트가 삼산월드체육관에서 펼쳐진다.

마무리가 깔끔하면 새로운 시작도 가볍다. 선물처럼 풍성한 12월의 다양한 공연으로 한해의 여유를 만끽하면서 2015년을 새롭게 출발해보자.

### 연말 분위기에 역시 감동적인 크리스마스!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형형색색의 캐롤을 올해도 인천시립합창단만의 정제된 음색으로 들을 수 있다. 이달 18일 오후 7시 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는 따뜻한 목소리와 아름다운 화음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흠뻑 느낄 수 있다.

또 12월 25일에는 ‘산타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가족음악회’가 서구문화회관에서 열린다. 40명의 산타가 들려주는 캐럴과 겨울동요에 친절한 해설을 곁들여 어린이들이 클래식을 더 쉽게 접할 수 있다. 특히, 가족이 참여하는 캐럴 부르기, 로비 악기 전시 및 연주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한다.

인천시립합창단 ‘크리스마스콘서트’

12월 18일 오후 7시30분 ☎1588-2341

산타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가족 음악회’

12월 25일 오후 4시 ☎580-1135



### 가슴 떨리는 뮤지컬의 진수를 맛보다

전 세계 30개국, 300여 개 도시에서 15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7천 300만 명 이상을 감동시킨 뮤지컬 명작 ‘캣츠’가 이달 12일부터 14일까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진다. 폭발적인 노래와 다채롭게 펼쳐지는 화려한 쇼로 관객을 휘어잡을 이번 공연에서는 30여 년 동안 ‘캣츠’를 끌고온 오리지널 크리에이티브 팀이 직접 선정한 월드 클래스의 배우들로 화려하고 다이내믹한 ‘캣츠’의 진가를 느낄 수 있다.

또 이름만으로 그 가치를 입증하는 뮤지컬 3디바 최정원, 홍지민, 전수경의 무대가 서구문화회관을 찾아온다. 이번 공연에서 배우들은 힘겨웠던 무명시절부터 현재 대한민국 최고의 디바 자리에 오기까지의 성공담과 진실된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다양한 뮤지컬 노래들을 완벽한 호흡과 환상적인 퍼포먼스로 관객들에게 들려준다.

뮤지컬 ‘캣츠’ 오리지널팀 내한공연

12월 12일 오후 7시 30분, 12월 13~14일 오후 2시, 7시

☎010-4439-8337

최정원 · 홍지민 · 전수경 ‘3디바 뮤지컬 갈라 콘서트’

12월 13일(토) 오후 4시 ☎580-1135



### 빼놓을 수 없는 레퍼토리, ‘호두까기 인형’

연말이면 생각나는 따스한 동화 이야기, 발레 ‘호두까기 인형’이 올해도 어김없이 무대 위에 올려 진다. 이달 27일 서구문화회관에서는 따뜻하고 화려한 무대가 돋보이는 ‘호두까기 인형’이 전문 발레 무용수들의 높은 점프, 고난이도 회전, 눈을 땔 수 없는 아름다운 군무로 아이와 어른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또 웅장한 무대세트와 화려하고 독특한 의상을 그대로 재현하고, 가족뮤지컬로 변신한 ‘호두까기’ 인형도 만나볼 수 있다. 뮤지컬 ‘호두까기 인형’은 이달 2일부터 28일까지 어린이과학관과 19일과 20일에는 인천여성가족재단 대강당에서 각각 펼쳐진다.

판타지 발레전막 ‘호두까기 인형’

12월 27일 오후 2시, 5시 ☎580-1135

뮤지컬 ‘호두까기 인형’

12월 2일~28일 ☎070-8249-0081

가족뮤지컬 ‘호두까기 인형’

12월 19일 오후 7시 30분, 12월 20일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707-1132

### 천상의 하모니와 감미로운 선율에 빠져들다

전 세계 합창단 중 유일한 아카펠라 합창단으로, 세계 최고의 솔리스트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이 이달 7일 인천관객을 찾아온다. 보이스프라노들의 완벽한 화음과 매혹적인 천상의 하모니를 보여주는 경이로운 이들의 공연은 연말과 크리스마스 시즌, 가족을 위한 멋진 선물이 될 것이다. 전석 매진의 신화를 이어온 세계 최고의 합창단의 아주 특별한 선물은 서두르지 않으면 1년을 또 기다려야 한다.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23일에는 한 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가 크리스마스를 위한 스페셜 공연으로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한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한국 클래식계의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며 활동하고 있는 리처드 용재 오닐과 함께 해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를 선물할 것이다. 또 30일에는 푸치니 오페라의 바탕인 글로리아 미사곡을 국내 거장 성악가들의 울림 있는 목소리로 감상할 수 있는 ‘송년음악회’가 펼쳐진다.

2014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내한공연 12월 7일 오후 5시 ☎010-3790-5469

2014 크리스마스콘서트 ‘유키 구라모토와 친구들’ 12월 23일 오후 8시 ☎1588-2341



Culture Info										2014. DECEMBER																																																																																																			
performance		musical		exhibition		concert		drama		1		2		3		4		5		6																																																																																									
										7		8		9		10		11		12																																																																																									
										14		15		16		17		18		19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div>이달의 展</div>																																																																																																													
<div>~12월 7일</div> <div>잃어버린 풍경을 찾아서 展</div> <div>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div> <div>12월 1일~12월 12일</div> <div>김경배 목판화전</div> <div>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div> <div>인천환경사진 공모전</div> <div>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다슴</div> <div>12월 3일~12월 14일</div> <div>예술영재 합동 발표회</div> <div>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운갤러리</div> <div>12월 5일~12월 11일</div> <div>제15회 인천시미술전람회 및 초대작가전</div> <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div> <div>12월 5일~12월 11일</div> <div>제4회 토요일사생 인천화우회전</div> <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div> <div>12월 12일~12월 18일</div> <div>제4회 아트크루전</div> <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div> <div>제5회 현대조형예술 협회전</div> <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div> <div>제15회 파스텔동인 선우회전(서양화)</div> <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div> <div>12월 17~12월 30일</div> <div>제38회 한국의 자연전</div> <div>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div> <div>일상에서 만나는 우리 자연색, 우리웃픈</div> <div>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다슴</div> <div>12월 19일~12월 25일</div> <div>제5회 제고사진미술동호회 작품전시회</div> <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div> <div>박하나 개인전</div> <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div> <div>엄영미 개인전(아름다운 동행)</div> <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div> <div>인천수채화아카데미 '飛上'전</div> <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div> <div>12월 23일~1월 4일</div> <div>'나들목' 전</div> <div>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운갤러리</div> <div>12월 26일~1월 1일</div> <div>2014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 예술작품전</div> <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div> <div>제1회 회원작품전(사진)</div> <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div>																																																																																																													
<div>5 연수성당 20주년 기념음악회</div> <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div> <div>오후 7시30분 / 초대</div> <div>☎822-2271</div> <div>스테이지149 '칼로막베스'</div> <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div> <div>오후 7시30분 / 전석 2만원</div> <div>☎1588-2341</div> <div>6 명품클래식시리즈Ⅵ</div> <div>익스트림 듀오-스테판 피 재키브&amp;지용 리사이틀</div> <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div> <div>오후 7시</div> <div>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div> <div>☎1588-2341</div> <div>스테이지149 '칼로막베스'</div> <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div> <div>오후 3시 / 전석 2만원</div> <div>☎1588-2341</div> <div>영화상영 '두부요리'</div> <div>인천평생학습관 다목적강의실</div> <div>오후 2시 / 무료</div> <div>☎899-1516~7</div> <div>7 2014파리나무심자가 소년합창단 내한공연</div> <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div> <div>오후 5시</div> <div>R석 8만8천원, S석 6만6천원</div> <div>☎010-3790-5469</div> <div>10 시립무용단 I-dance</div> <div>'시민의 춤-Shall we dance'</div> <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div> <div>오후 7시30분 / 전석 5천원</div> <div>☎1588-2341</div> <div>12 뮤지컬 '캣츠' 오리지널팀 내한공연</div> <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div> <div>오후 7시30분</div> <div>젤리클석14만원, VIP석 14만원, R석 11만원, S석 9만원, A석 7만원, B석 5만원</div> <div>☎010-4439-8337</div> <div>뮤지컬 '호두까기인형'</div> <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div> <div>오전 11시, 오후 1시30분</div> <div>전석 1만5천원, 단체 1만원</div> <div>☎811-0550</div> <div>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아이팝 키즈 클래식 콘서트 Red!'</div> <div>부평문화사랑방</div> <div>오후 7시 / 3천원</div> <div>☎505-5995</div> <div>13 뮤지컬 '캣츠' 오리지널팀 내한공연</div> <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div> <div>오후 2시, 7시</div>																						<div>젤리클석14만원, VIP석 14만원, R석 11만원, S석 9만원, A석 7만원, B석 5만원</div> <div>☎010-4439-8337</div> <div>로비음악회 12시15분 '타악 앙상블과 함께하는 신나는 크리스마스!'</div> <div>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div> <div>12시15분 / 무료</div> <div>☎500-2000</div> <div>최정원 · 홍지민 · 전수경 '3DIVA 뮤지컬 갈라 콘서트'</div> <div>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div> <div>오후 4시</div> <div>R석 5만원, S석 4만5천원, A석(2층) 3만원</div> <div>☎580-1135</div> <div>영화상영 '슈퍼배드 2'</div> <div>인천평생학습관 다목적강의실</div> <div>오후 2시 / 무료</div> <div>☎899-1516~7</div> <div>14 뮤지컬 '캣츠' 오리지널팀 내한공연</div> <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div> <div>오후 2시, 7시</div> <div>젤리클석14만원, VIP석 14만원, R석 11만원, S석 9만원, A석 7만원, B석 5만원</div> <div>☎010-4439-8337</div> <div>경인방송 개국17주년 송년음악회</div> <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div> <div>오후 7시 / 무료</div> <div>☎830-0603</div> <div>17 재즈파크빅밴드의 '스윙스(Swings)'</div> <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div> <div>오후 2시, 8시(특별무대)</div> <div>전석 1만5천원</div> <div>☎1588-2341</div> <div>오브제 연극 '꿈을 파는 가게'</div> <div>부개문화사랑방</div> <div>오후 7시 / 3천원</div> <div>☎507-5996</div> <div>위대한 문화유산시리즈Ⅳ '국악기의 재발견'</div> <div>부평문화사랑방</div> <div>오후 7시 / 3천원</div> <div>☎505-5995</div> <div>18 인천시립합창단 제143회 정기연주회</div> <div>크리스마스콘서트</div> <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div> <div>오후 7시30분 / 전석 1만원</div> <div>☎1588-2341</div> <div>세시봉 윤형주의 음악과 노래이야기</div> <div>인천평생학습관 미추홀</div> <div>오후 7시 / 무료</div> <div>☎899-1516~7</div>																						<div>19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42회 정기연주회</div> <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div> <div>오후 7시30분</div> <div>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div> <div>☎1588-2341</div> <div>실전연애코미디극 '작업의 정석'</div> <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div> <div>오후 7시30분 / 전석 3만원</div> <div>☎1544-3901</div> <div>20 인종제고총동창회 '해설이 있는 송년음악회'</div> <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div> <div>오후 5시 / 무료</div> <div>☎764-1100</div> <div>실전연애코미디극 '작업의 정석'</div> <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div> <div>오후 3시, 7시 / 전석 3만원</div> <div>☎1544-3901</div> <div>연극 '키사라기 미키짱'</div> <div>남동소래아트홀 소래극장(대공연장)</div> <div>오후 3시, 7시 / 2만5천원</div> <div>☎453-5710</div> <div>21 실전연애코미디극 '작업의 정석'</div> <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div> <div>오후 2시, 6시 / 전석 3만원</div> <div>☎1544-3901</div> <div>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연극발표회 '세상에 당당히 맞서라'</div> <div>연수구 문화의 집(동춘역 1번 출구 이마트 옆)</div> <div>오후 3시 / 무료</div> <div>☎821-6229</div> <div>23 '유키 구라모토와 친구들</div> <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div> <div>오후 8시</div> <div>R석 8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B석 2만원</div> <div>☎1588-2341</div> <div>실전연애코메디극 '작업의 정석'</div> <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div> <div>오후 7시30분 / 전석 3만원</div> <div>☎1544-3901</div> <div>스노우시티 '세계음악거장 아카펠라콘서트'</div> <div>부평문화사랑방</div> <div>오후 7시 / 3천원</div> <div>☎505-5995</div> <div>24 실전연애코미디극 '작업의 정석'</div> <div>오후 3시, 7시 / 전석 3만원</div> <div>☎1544-3901</div> <div>콘서트 오페라 '라보엠'</div> <div>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싸리재홀</div> <div>오후 7시 / 6천원, 학생무료</div> <div>☎760-3457</div>																						<div>25 김미경의TALK&amp;SHOW</div> <div>'나 데리고' 사느법 X-mas -인천</div> <div>인천예술종합문화회관 대공연장</div> <div>오후 2시, 6시</div> <div>R석 6만6천원, S석 5만5천원</div> <div>☎1566-6551</div> <div>실전연애코미디극 '작업의 정석'</div> <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div> <div>오후 3시, 7시 / 전석 3만원</div> <div>☎1544-3901</div> <div>산타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가족 음악회'</div> <div>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div> <div>오후 4시 / 2만원</div> <div>☎580-1135</div> <div>26 실전연애코미디극 '작업의 정석'</div> <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div> <div>오후 7시30분 / 전석 3만원</div> <div>☎1544-3901</div> <div>송년음악회 'THE BEST_공감 콘서트'</div> <div>로맨틱편치 &amp;트랜스픽션&amp;내 귀의 도청장치</div> <div>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div> <div>오후 7시 / 4만원</div> <div>☎500-2000</div> <div>27 강부자 연극 '친정엄마와 2박3일'</div> <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div> <div>오후 3시,7시</div> <div>R석 7만7천원, S석 6만6천원</div> <div>☎1566-6551</div> <div>실전연애코미디극 '작업의 정석'</div> <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div> <div>오후 3시, 7시 / 전석 3만원</div> <div>☎1544-3901</div> <div>송년음악회 'THE BEST_공감 콘서트'</div> <div>해바라기&amp;동물원</div> <div>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div> <div>오후 7시 / 4만원</div> <div>☎500-2000</div> <div>로비음악회 12시15분 '따뜻한 재즈 선율이 함께하는 송년콘서트!'</div> <div>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div> <div>12시15분 / 무료</div> <div>☎500-2000</div> <div>포럼연극 '슈퍼우먼 콤플렉스'</div> <div>부평문화사랑방</div> <div>오후 7시 / 3천원</div> <div>☎505-5995</div> <div>판타지 발레전막 '호두까기 인형'</div> <div>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div> <div>오후 2시, 5시</div> <div>R석 2만5천원, S석 2만원</div> <div>☎580-1135</div>																						<div>28 강부자 연극 '친정엄마와 2박3일'</div> <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div> <div>오후 2시</div> <div>R석 7만7천원, S석 6만6천원</div> <div>☎1566-6551</div> <div>실전연애코메디극 '작업의 정석'</div> <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div> <div>오후 2시, 6시 / 전석 3만원</div> <div>☎1544-3901</div> <div>30 (사)인천음악문화원 'Adieu 2014송년음악회'</div> <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div> <div>오후 7시30분</div> <div>R석 3만원, S석 2만원</div> <div>☎429-0248</div> <div>실전연애코미디극 '작업의 정석'</div> <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div> <div>오후 7시30분 / 전석 3만원</div> <div>☎1544-3901</div> <div>31 인천시립교향악단 제야음악회</div> <div>인천예술종합문화회관 대공연장</div> <div>오후 10시</div> <div>R석 1만원, S석 7천원,</div> <div>☎1588-2341</div> <div>실전연애코미디극 '작업의 정석'</div> <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div> <div>오후 7시30분</div> <div>전석 3만원</div> <div>☎1544-3901</div> <div>同樂, 열린무대</div> <div>남동소래아트홀 스튜디오 제비(소공연장)</div> <div>오후 8시 / 무료</div> <div>☎453-5710</div>																					



## 성탄 축하목 위해 나무 뽑지 마시오

6·25 전쟁이 끝난 후 상흔이 아물면서 시 행정도 급속히 안정을 찾아갔다. 인천시는 시민들에게 시 정책과 지역의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1953년(단기 4286년)부터 1961년까지 ‘인천공보(仁川公報)’라는 주간 신문을 발행했다. 어찌 보면 본지 ‘굿모닝인천’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문을 보면 그 시절의 시 정책은 물론 인천의 사회상과 시민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당시 ‘인천공보’의 기사를 원문 그대로 발췌하되 이해하기 힘든 단어나 문장은 현재 어법에 맞게 고쳐서 매월 이 지면에 게재한다.

정리 유동현 본지편집장

### 유류 원료난으로 피마자를 모집

국내산 유류 원료원 부족으로 말미암아 금번 중앙 방침에 의거하여 피마자를 수집한다고 하는데 인천시에서도 이 계획에 따라 수집운동이 전개되리라고 한다.

(1953년 12월 23일자)

### 영화교에서 여상고 설립 준비 중

57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영화학원은 국민학교와 여자중학교 그리고 최근에 승격을 본 가정전수학교 등 일련의 교육기구로서 교육 사업에 커다란 공적을 쌓고 있거니와 소식통에 의하면 기독교감리교 선교사 월슨 여사의 협력으로 설립기금과 운영 경비를 장만하여 내년 내로 여자상업고등학교를 설립하고자 준비 중에 있다고 전해진다.

(1953년 12월 23일자)

### 공동변소 15개 신축

인천시는 CAC의 물자 원조와 당국의 보조로 금년 들어 공동변소 10개를 신축하였으며 또한 5개는 공사 중으로 곧 완성을 보리라 한다. 동 변소가 준공되면 종전에 있

는 3개소와 합하여 18개소가 인천에 있게 되는데 사변(6·25 전쟁) 전에는 7개소 있던 것이 사변으로 4개소가 전파되어 3개소 만 남았던 것이다.

(1954년 12월 4일자)

### 열한 달에 5천명 출생

인천시 호적과 집계에 의하면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사이에 인천의 출생자와 사망자 사이에는 현격한 숫자적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그 비율은 3대 1이라는 놀라운 인구 증가 실태를 여실히 보이고 있는 것이다. 출생자 수는 4천 922명이며 사망은 1천596명으로서 11개월간 3천326명이 증가한 것으로 일일평균 출생이 15명, 사망이 5명인 것이다. 그런데 동 출생자 숫자 속에는 사생아가 12명이나 포함되고 있으며 기아(棄兒·버려지는 아이) 수는 무려 73명이나 된다고 한다. (1954년 12월 18일자)

### 성탄 축하 위한 나무 채취 엄금

인천시 농림과에서는 성탄 축하목(성탄트리)으로 입목(立木)의 채굴 또는 생지(生枝·나뭇가지)의 채취로 인하여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지역의 문화활동은 꾸준히 진행되었다. 1956년 12월 21일자에 실린 ‘시와 음악의 밤’ 공지 기사다.



예전에는 성탄절이 되면 대부분의 교회가 크리스마스트리를 세우고 성탄 연극을 공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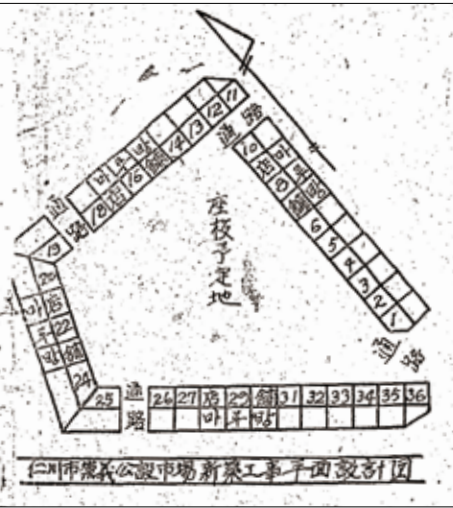
산림조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 하는 현실에 비추어 금년 성탄절에는 축하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입목의 채굴, 생지의 채취 등을 방지하고 부득이 한 경우에는 조원목(造原木), 분재목(盆栽木) 또는 허가 임지의 생지 등을 이용하도록 관할 각 출장소 및 동장에 시달하였다.

(1955월 12월 12일자)

### 승의시장 연내 완공

오랫동안 논의하여 오던 승의공설시장이 연내로 발족하기로 되어(계약은 두 달) 이미 공사계약이 완료되었다. 동 시장은 10월 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동 추진위원회에서 계획을 하였는데 부지 관제로 지연되어 연내에는 준공을 보게 된 것이다. 승의동 134번지에 471평의 건평 내에 점포는 36개(개당 5평)다. 공사는 서울에 있는 신립토건사에 의해 시공케 되었는데 동 시장이 발족을 보게 된 것은 정지환, 노윤호 양 의원의 노고는 물론 시 당국의 승의, 주안, 용현, 학익동 등 인근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과단적인 조치에 의한 것이다.

(1956년 12월 7일자)



승의공설시장 점포 배치도





### 청라 시티타워 건립 '탄력'

청라국제도시 내 초고층 건물인 시티타워 건립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달 10일 한국토지주택(LH)공사 등과 사업권 이관을 주 내용으로 한 '청라 시티타워 · 복합시설 사업' 협약을 맺었다. IFEZ는 이날 협약으로 LH공사로부터 시티타워 건축공사와 복합시설 개발 사업자 일괄 공모 권한을 비롯해 시티타워 건설비용 등을 넘겨받게 됐다. 시티타워 건립과 복합시설개발사업은 사업추진 방식이 달라 개별 추진, 통합추진에 대한 논란과 함께 그동안 많은 난관에 봉착하며 사업이 지연됐다.

한편 시티타워 건립사업은 관급공사로 높이 453m, 건축면적 1천635㎡(약 495평), 연면적 3만1008㎡(9천396평)의 타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티타워 주변 복합용지 개발사업은 시티타워와는 달리 민자사업으로 진행되며 시티타워 인근 3만3천58㎡(약 1만평)에 문화, 쇼핑, 관광·레저 등 복합시설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453-7323



### 유 시장, 투자유치 위한 중국방문

유정복 시장은 지난달 12일 중국 산둥성 지난(濟南)을 방문, 귀수청(郭樹淸) 산둥성장과 물류 · 관광 · 문화 · 교육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2일부터 16일까지 중국 출장길에 오른 유 시장은 인천시와 산둥성 간 우호도시 관계 10주년을 맞아 두 도시 간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인천시와 산둥성은 협약 체결을 계기로 2015 세계 책의 수도 행사와 국제아동교육도서전이 내년 인천에서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유 시장은 지난달 13일, 중국 고속철도 주요시설을 시찰하고 14일에 상하이를 방문, '한·중 차세대 리더포럼' 발족식에 참가한 뒤 내년 4월 이 행사를 인천에서 유치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유정복 시장과 박승희 시의회 부의장은 이날 상하이에서 릴레이 중국 협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 설명회를 열고 인천 8대 전략산업과 루원시티 · 도화지구 개발사업 등을 홍보했다.

문의 : 시 국제협력관실 ☎440-3223

###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임대료 대폭 인하

우리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대폭 인하한다.

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해 시설을 설치할 경우 임대료 요율을 재산 평가가격의 0.5%에서 0.1%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시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인천시에너지기본조례'를 개정, 임대료 요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시는 공시지가가 높은 도시에서는 공공시설 임대료가 비싸 사업자가 투자를 꺼려왔지만, 임대료 인화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 시 녹색에너지정책과 ☎440-4353



### 내년 보육·출산예산 5.4% 증가

우리는 내년도 보육·출산 예산을 올해 5천3억원보다 5.4% 늘어난 5천276억원으로 편성했다. 보육·출산 예산이 늘어난 것은 누리과정 예산이 688억원에서 1천205억원으로 무려 75% 늘어난 것에 따른 것이다. 시는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의 간 이견으로 무상보육 사업이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에 대비, 누리과정 운영비를 대폭 늘려 편성했다. 누리과정 예산 외에 올해보다 증액 편성된 예산 항목은 어린이집 운영지원(364억원),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등 역량 강화(243억원)가 있다.

문의 : 시 보육정책과 ☎440-2892



### 내년 6월, 글로벌 부동산투자박람회 송도서 개최

국제 부동산투자박람회인 '씨티스케이프 코리아 2015'가 내년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

우리는 지난달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포마그룹과 공동으로 국내 첫 씨티스케이프 코리아를 내년 송도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씨티스케이프는 영국 전시·컨퍼런스 전문기업인 '인포마그룹'이 주관하는 부동산 투자박람회로 아랍에미리트(UAE)·카타르·미국 등 8개국에서 개최되고 있다.

내년 행사에는 세계 10여 개국의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민간개발업체 150여 개가 참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사장에서는 각종 부동산 개발 기업들이 홍보관을 차리고 투자 유치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문의 : 시 투자유치담당관실 ☎440-3294



### 전국 최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착수

우리가 전국 최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수립에 착수했다. 시는 한국교통연구원과 '인천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최근 착수 보고회와 함께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은 전부 개정돼 지난 7월 8일부터 시행된 '도시철도법'에 처음 도입된 법정계획으로서 앞으로 이 계획에 포함된 노선에 한해 도시철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는 새로운 도시철도법 시행과 민선 6기 출범에 맞춰 박근혜 대통령 선거 공약이자 유정복 시장의 핵심공약인 '서울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추진뿐만 아니라, 도시철도의 미래를 제시하고자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용역비 8억 원을 편성, 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용역에서는 '서울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뿐만 아니라 기존 구상 노선(7개 노선)과 각 군·구 및 관련 기관에서 요구한 신규 노선(8개 노선) 등 총 15개 노선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을 통해 노선별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할 계획이다.

문의 : 시 대중교통과 ☎440-3833



### 페르손 전 스웨덴 총리와 스마트시티 협력 논의

요란 페르손(Goran Persson) 스웨덴 전 총리가 지난 달 18일 인천 시청을 방문, 유정복 시장을 접견했다.

스칸디나비아 바이오가스 회장인 페르손 전 총리는 이날 면담에서 스웨덴의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시티 콘셉트를 공유하고 스마트시티 건설과 관련해 인천시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마티 비쿨라(Matti Vikkula) 스칸디나비아 바이오가스 최고경영자와 조경환 스칸디나비아 바이오가스 코리아 이사도 면담에 참석, 인천시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1996~2006년 스웨덴 총리를 3회 연임한 페르손 전 총리는 2001년에는 유럽연합 의장국 대표로서 서방국 정상 최초로 북한을 방문하고 서울과 평양에 동시에 상주 대사관을 개설하는 등 한반도 평화문제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의 : 시 국제협력관실 ☎440-3233







## News Brief



### 체납액 징수 2월까지 정리

우리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강화할 예정이다. 우리시와 군·구의 올해 세외수입 부과액은 7천537억원이지만, 지난 9월 말 현재 2천883억원(38.3%)이 징수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1~2월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며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우선 체납 고지서를 발송하고 고액 체납자 현장 실태조사와 납부 독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자동차 등에 대한 재산 압류를 추진하는 한편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으로 예금을 압류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 2월까지 체납액의 약 20%인 526억원을 징수한다는 목표 아래 강력한 체납 처분과 징수 독려 활동을 병행한다.

문의 : 시 세정과 ☎440-2573

### 인천녹색기후포럼 출범

우리시의 녹색기후 관련 정책 개발을 뒷받침할 인천녹색기후 포럼이 지난달 12일 정식 출범했다.

인천녹색기후포럼은 이날 오전 송도컨벤시아에서 출범식을 열고 인하대·인천대·인천발전연구원 등 대학과 환경 관련 기관 소속 전문가 130명을 포럼 위원으로 위촉했다. 우리시는 녹색기후기금(GCF)과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시의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식의 포럼을 준비해 왔다.

포럼은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분과와 녹색기후기금 분과로 나뉘어 기후변화 대응 정책 개발, GCF 유관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문의 : GCF전략과 ☎453-7523



### 지자체 최초 가치공학 경진대회서 2년 연속 최우수상

우리시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2014 전국 가치공학(VE) 경진대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다. 우리시는 '인천로봇랜드 공익시설 조성사업' 등 주요 건설사업 설계과정에서 가치공학 기법을 적극 활용했다는 평가에 힘입어 17개 공공기관·민간업체의 19개 사례 중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가치공학은 건설공사 각 설계단계에서 원설계자가 아닌 제3자의 가치공학적 검토를 통해 기능향상과 원가절감을 꾀하는 건설사업관리기법의 하나다. 시는 건설분야 VE 경영기법을 적용해 이를 통한 재정건전성 회복, VE 검토 운영프로그램의 체계적 개발, 전국 최초 자체 매뉴얼개발 등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시는 올해 30억 원 이상 대형 건설사업 24건에 대한 VE 검토를 실시, 355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문의 : 시 건설심사와 ☎440-3813

### 이젠 버스번호 확인하러 뛰지 마세요

우리시는 연말까지 시내버스 2천441대 전체를 대상으로 정류장에 일렬로 들어오는 시내버스의 노선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돌출형 번호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돌출형 번호판'은 버스 앞문에 부착해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한 후 앞문이 열리면서 노선 번호판이 차체와 수직으로 펼쳐져 정류장에서 대기하는 승객들이 멀리서도 시내버스의 노선번호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시는 야간에도 쉽게 눈에 띄도록 번호판을 제작해 부착할 예정이다. 돌출형 번호판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번호판 하단을 활용한 광고수입금으로 충당하는 한편, 일부 수입금은 시내버스 운영개선을 위한 부대수입금으로 적립할 계획이다.

문의 : 시 버스정책과 ☎440-3943



## News Brief

### 영종도, 복합리조트로 변신한다

영종도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이 연말로 접어들면서 상당 부분 가시화되어가고 있다.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현재 영종도에 카지노 복합리조트 2건이 확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파라다이스 그룹과 일본 세가사미 홀딩스 합작회사인 '파라다이스 세가사미'는 지난 11월 20일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IBC-1)에서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 1단계 기공식을 열었다. 파라다이스시티 1단계는 20만천41㎡ 부지에 국내 최대 규모 외국인전용 카지노, 특1급호텔, 플라자, 컨벤션 시설, 레스토랑, 고급형 스파 등을 갖춰 2017년 상반기 준공될 예정이다.

또 지난 3월 정부의 사전 심사를 통과한 리포&시저스(LOCZ)는 연말까지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 부지인 미단시티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내년 9월 시설 공사에 착수해 2018년 상반기 1단계를 준공한다.

특히, 지난 11월 16일 홍콩을 방문했던 유정복 시장은 홍콩 4대 재벌 그룹인 '초우타이푹(周大福·이하 CTFE)사'로부터 영종도에 10억달러(약 1조1천억원) 규모의 복합리조트 개발을 위한 투자意向서를 전



달받았다. 이 회사는 투자 대상으로 미단시티와 옛 밀라노디자인시티(MDC) 부지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1단계로 외국인전용 카지노·호텔·쇼핑시설·엔터테인먼트 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리조트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453-7342

### 덕적도~소야도 잇는 연도교 본격 착공

덕적도와 소야도를 잇는 연도교 건설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웅진군은 지난달 14일 덕적면 도우선착장에서 덕적~소야도 연도교 공사 착공식을 열었다.

덕적도 인근의 소야도에는 학교나 의료시설이 없어 그동안 주민들은 덕적도까지 배를 타고 가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연도교가 완공되면 기상 상황과 관계없이 두 섬간 24시간 차량 통행이 가능해진다.

연도교는 접속도로 포함 전체 길이 1천137m, 폭 8.5m로 29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18년 완공할 예정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연도교 건설로 소야도 주민들의 의료권과 학습권이 보장되고 관광객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연평도 포격 4주기 추모제' 개최

연평도 포격도발 4주기인 지난 달 23일 인천시 웅진군 연평도 평화추모공원에서 전사한 장병의 넋을 기리고 안보의지를 다지는 추모제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유정복 시장, 노경수 인천시의회 의장, 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 등 주요 내빈과 주민·연평부대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순국선열·호국영령·전사 장병에 대한 묵념, 주요 인사들의 헌화·분향, 추모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내빈들은 추모제를 마치고 연평부대를 방문해 북한의 동향을 살핀 뒤 주민대피시설과 안보교육장을 찾아 비상 시 대응태세에 대해 청취했다. 또 연평면사무소 등지에서 간담회를 열고 주민들의 고충사항을 들으며 위로의 말을 전했다.

문의 : 웅진군청 ☎899-3451

### '선제적 재난안전관리'로 재난사고 예방

우리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 9억원을 확보해 '선제적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선제적 재난안전관리는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이 취약한 시설 등을 점검·정비하는 활동을 뜻한다.

시는 확보한 예산으로 낡은 배수펌프장·하수관 시설을 정비하고 지하역세권 통합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지하역세권 통합 예·경보 시스템이 마련되면 부평역 등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역세권에서 발생하는 재난·사고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 8월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 5억원을 지원받아 '부평구 안전체험교육관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의 : 시 안전총괄과 ☎458-7273







### 위험, 취약시설 현장점검

인천시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는 안전관리실태 현장 점검 첫날인 지난 10월 31일 SK에너지인천물류센터, 연안여객터미널, 송월시장을 방문했다. 특위는 이날부터 11월 11일까지 3주간 5차례에 걸쳐 위험·취약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방문 지역은 안전도 등급이 낮은 공동 주택시설, 전통시장, 수인선 건설현장, 부평역 지하상가, 십정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등이다. 특위는 현장 시설을 관리자로부터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안전점검표와 대조하며 실질적인 점검을 벌였다.

신영은 특위 위원장은 “최근 판교 환풍구 붕괴처럼 사고는 늘 불시에 발생한다.”며, “돌발 상황까지 고려한 종합적이고 수준 높은 안전 관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인고속도로 조속한 일반화 촉구 결의안 발의

인천광역시의회는 ‘경인고속도로의 조속한 일반화 및 지하화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에서 만성적인 도로체적으로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하고 주변 인천시민들의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의 조기 일반화 및 지하화 추진과 통행료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승희 부의장은 “경인고속도로의 일반화 및 지하화 촉구 결의안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며 수도권 시민들의 염원인 동시에 남·북간 도심단절로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현재 상황의 개선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경인고속도로를 일반도로로 그 기능을 전환하여 인천시민에게 되돌려 주는 것으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사항임을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은 이달 18일 22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다.

### 건교위 현장중심의 행정사무감사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달 13일부터 25일까지 건설교통 및 도시계획국 등을 포함한 총 8곳의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건교위는 주민불편사항 발생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현장 감사에 집중해 찾아가는 의정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건교위 위원들은 13일에는 12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 도시형 자기부상열차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부평동~장고개간 도로 개설 관련 민원현장을 방문하여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건교위는 현장감사를 통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주거생활 불편사항 및 안전 위해요소와 대규모 건설현장 등의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했다.

### 생활하수 악취민원 현장 방문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생활하수 유입으로 악취 민원이 빈번한 남동구지역 장수천 주변 만수천 합류부와 운연천 상류인 만의골 지역을 방문하여 민원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산업경제위원들은 하수처리수 하천유지용수 활용방안, 장수천과 운연천 오·폐수 유입 차단 대책 등에 대하여 질의했으며, 고질적인 환경민원 해결은 물론 지역 주민과 함께 살아 숨쉬는 생태하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산업경제위원회 오홍철 의원(남동구 제5선거구)은 “장수천과 운연천이 깨끗하고 맑은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유지용수 확보와 더불어 하천 구간의 오·폐수 유입 차단이 시급한 과제.”라며, 오·폐수 유입차단으로 하천오염을 막고, 근본적으로는 하천의 치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살아숨쉬는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하천정비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 타 지역 석유화학시설 비교시찰

인천광역시의회 SK인천석유화학 주민피해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5일~6일 타 지역 석유화학시설 비교 시찰을 위해 충남 서산시와 전남 여수시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SK인천석유화학이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불신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10여 개가 넘는 주민대책위는 각각의 불만과 요구사항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위는 타 시·도 석유화학 시설을 방문하여 공장 현황과 사고 발생 시 안전대책을 확인하고 지역 주민과의 소통과 상생방안 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기획됐다.

첫날 특위는 서산시에 위치한 삼성토탈 대산공장을 방문하여 시설 현황과 안전대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역 주민과의 소통 및 상생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 ‘풀뿌리 민주주의를 배운다’ 청소년 의회교실

인천광역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이 지난 10월 29일 오후 본회의장에서 인천 시내 10개 고등학교 학생 101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학생의정체험 프로그램에 참가 신청하였지만 선정되지 못한 학교들을 대상으로 각 학교별로 10여 명의 학생대표들을 뽑아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작년에 처음 개설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두 차례에 걸쳐 초등학교 11개학교, 중학교 10개학교가 참가했다.

본 프로그램은 의회소개 및 동영상 시청, 스피치 특강, 회의 진행과정 설명, 참가학생들의 모의 본의회 실제 재연 등으로 이어졌고, 참가학생들은 봉사활동 점수화 제도안, 학생인권조례안 등 2건의 안건 상정을 통해 조례가 어떻게 제정되는지를 직접 체험했다.

비회기 중에도 시민과 함께하고 열린 의회가 되고자 운영하고 있는 의정아카데미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의회체험이라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나아가 의회민주주의를 가르치는 살아있는 교육현장으로 큰 역할을 다하고 있다.

### 주요 단체와 간담회 열어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달 12일(수) 인천광역시 생활체육인 단체와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생활체육 관련 현안사항과 건의사항 그리고, AG경기장 사후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 개진이 있었다. 특히 2015년 인천시 건축예산 편성에 따른 생활체육계 전반의 어려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한 협회장은 “현재도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생활체육 관련 대회 참가 및 개최에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데, 이것마저 줄이거나 완전 삭감이 되면 협회 유지 자체가 위협받을 정도.”라며 소관 상임위원 문화복지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문화복지위원회 주요단체 간담회는 12일(수) 생활체육인 간담회를 시작으로 11월 25일(화) 문화예술 단체 대표자 간담회, 11월 26일(수) 보훈관련 단체 간담회까지 4회에 걸쳐 진행됐다.

### 아시아경기장 사후 활용 방안 토론회

인천광역시의회 첫 연구단체인 ‘체육시설활용방안연구회’는 지난달 21일(금) 오후 4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아시아경기장 사후활용방안쟁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 연구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박영애 의원이 종합의견자로, 공병건 의원이 토론회 사회자를, 이한구 의원이 발제자를 맡았다. 이번 토론회는 연구단체 목적과 지난 3개월의 연구회 활동 경과를 시민들에게 보고하고, 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회, 체육회, 지자체 등 운영 주체별 계획을 들으며 이에 대한 시민, 대학교수, 복지전문가 등의 토론으로 전개됐다.



### 전국체육대회 선수단 격려

인천광역시의회 노경수 의장은 지난 10월 28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된 제95회 전국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인천 본부 및 수영, 탁구, 레슬링, 복싱, 양궁, 볼링, 보디빌딩 선수단을 찾아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했다.



추천도서 목록			
서 명	지은이	출판사	책 소개
하루 10분 독서의 힘	임원화	미다스북스	인생을 바꾸는 순간 물입 38법칙
가장 소중한 것을 지금 하라	크리스티아네 추 잘름	토네이도	어제 떠난 이들이 들려주는 오늘을 위한 말
나는 아직도 사람이 어렵다	강은호, 김종철	문학동네	오늘도 사람에 치인 당신을 위한 관계심리학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짓	최동석	21세기북스	최악의 의사결정을 반복하는 한국의 관료들
프랑스 엄마처럼	오드리 아쿤, 이자벨 파요	북라이프	일등이 아니어도 행복한 프랑스식 긍정 교육법
남자가, 은퇴할 때 후회하는 스물다섯 가지	한혜경	아템포	은퇴남 1천명이 들려주는 은퇴 순간의 진실
발음의 신	김명기	넥서스	특허 받은 영어 발음 훈련법
100명 중 98명이 헛갈리는 우리 말 우리 문장	김남미	나무의철학	한국어 사용자의 필수상식
쓰러질 때마다 일어서면 그만	이외수	해냄출판사	흔들리는 세상을 뚫고 살아남는 방법!
한뼘한뼘	강예신	예담	마음을 다독이는 힐링토키의 공감동화
저니맨	파비안 직스투스 페르너	위즈덤하우스	생애 한 번, 반드시 떠나야 할 여행이 있다!
현판기행	김봉규	담애티크	고개를 들면 역사가 보인다!

자료제공 미추홀도서관 ☎440-6656

## 사진과 연표로 보는 인천체육사

조우성 | 푸른섬 | 2014

지난 세기 인천시가 걸은 체육의 발자취를 사진과 연표로 정리한 책이 발간돼 화제다.

조우성 인천일보 주필이 펴낸 '사진과 연표로 보는 인천체육사'는 1883년부터 2014년까지 인천에서 벌어진 스포츠경기의 역사를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다. 연표를 보면 1899년 2월 인천 영어야학교 생도 후지사와가 자신의 일기에 '야구경기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최초의 야구경기 기록이다. 1919년 창단한 인천청년들의 운동단체인 '한용단(漢勇團)'은 인천체육의 선구자 역할을 했고, 인천에서 야구의 대중화를 여는 역할을 했다. 1966년 인천대건고 출신 안건평 선수가 육상공인기록회 1만m에서 한국신기록을 수립한 것으로 적고 있다. 이 책은 체육의 역사와 더불어 당시 중요한 사회, 제도, 풍습 등도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인천의 체육에 대한 발자취를 일별로 기록하기 위해 일간지, 지역신문, 연감, 학교의 사자까지 뒤져가며 하나의 기록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저자의 노고와 수고 덕분에 인천의 체육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지게 됐다.



## 남자가, 은퇴할 때 후회하는 스물다섯 가지

한혜경 | 아템포 | 2014

100세 시대에 행복한 은퇴생활을 보내기 위해 인생을 보는 패러다임을 바꿀 것을 제안한다. 지금이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 은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절실하며, 은퇴남들의 후회목록에는 돈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돈 때문에 포기했던 수많은 인간적인 삶의 가치들이 돈만큼이나 중요함을 깨닫게 해준다.



## 가장 소중한 것을 지금 하라

크리스티아네 추 잘름 | 토네이도 | 2014

치유 불가능한 병에 걸려 죽음과 마주해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죽음 앞에 남는 것들을 본다. 그들은 하나같이 '소중한 것을 유예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지나고 나면 한 일을 후회하기보다 하지 않은 일을 후회하기가 훨씬 더 쉽다는 것은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는 물론 산 사람에게도 자명한 사실이다.



독자가 꾸미는  
인천 사는  
이야기



장원

### 가야금 소리에 이끌린 동심

송도 미추홀공원에 있는 다례원에서는 매주 월요일에 가야금 강좌가 열립니다. 가야금을 연주하던 중 깜짝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미추홀공원으로 소풍 나온 아이들이 가야금 소리에 이끌려 창문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조윤아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 의미 있는 순간의 현장에서

2014년 인천은 아시아경기대회로 뜨거웠습니다.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린던 날, 외손자와 함께 남동경기장으로 나들이하며 의미 있는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최명석 남동구 담방로



### 내가 소래포구를 찾는 이유

언제나 분주한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지는 먹거리가 가득한 곳. 바다에서 올라 온 수산물의 천국. 내가 소래포구를 자주 찾는 이유입니다.

여상길 남동구 담방로



### 인천에 이런 곳이 있구나!

백령도 장촌 남포리 해안에 가면 특이한 모양의 습곡구조가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제507호로도 지정된 귀한 자연자산입니다. 일반인들에게도 알려졌다면 모두 감탄했을 텐데 그렇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이우평 연수구 센트럴로

### 〈굿모닝인천〉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 인천을 주제로 한 사진과 글을 받습니다. 인천 풍경에 대한 단상, 인천에서의 추억이 담긴 사진과 함께 간단한 자연(원고지 1매 분량)을 보내 주세요.
- ※ 채택되신 분께는 온누리상품권(2매, 장원은 3매)을 보내드립니다. 마감은 매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야 접수됩니다.

### 보내실 곳

우)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굿모닝인천〉독자마당 담당자 앞  
홈페이지 : goodmorning.incheon.go.kr  
문의 : 440-8305



##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인천을 위해

인천 광역치매센터는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인천을 위한 전략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치매 관리의 현황과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주제 :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인천을 위한 전략과 대책’

일시 : 12월 12일(금) 오전 10시~오후 5시

장소 : 가천대학교 메디컬캠퍼스 봉사관 5층 강당

주최·주관 : 인천 광역치매센터

대상 : 유관기관 관계자 및 실무자, 관련 공무원, 학생 및 수련생

교육비 : 무료

참가신청 : 참가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선착순 250명)

※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치매센터 홈페이지(incheon.nid.or.kr)에서 확인

문의 : 472-2027



## 코레일공항철도 서해바다열차 연장 운행

코레일공항철도는 서해 바다열차를 12월 28일까지 연장 운행한다. 올해가 가기 전 바다열차를 타고 서해를 여행해 보자.

### 운행코스

용유임시역행(하행) : 오전 7시 29분부터 오후 5시 31분까지,

1시간 간격 서울역 출발

서울역행(상행) : 첫차 오전 8시 47분, 막차 오후 7시 25분,

1일 상·하행 각 10차례 운행

바다열차는 서해로 가는 여행객의 이동 편의를 위해 용유임시역까지 다니는 연장 노선. 서울역에서 용유 임시역까지 1시간 8분 걸린다.

## 치매인식개선 ‘사진 및 UCC 공모전’

인천 광역치매센터는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2014년 치매인식개선 ‘사진 및 UCC 공모전’을 개최한다.

응모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 공모 분야

① 사진 부문 ‘미(美)치(痴)도록 행복한 순간’

② UCC 부문 ‘나의 치매예방 노하우(Know-how)’

접수 : 11월 10일~12월 10일

접수방법 : 참가신청서와 함께 작품을 첨부하여 이메일

(incheon@nid.or.kr) 접수

시상내역(사진/UCC부문 각각 시상)

구분	인원	상금
최우수상	1작품	상장 및 상품권 50만원
우수상	2작품	상장 및 상품권 30만원
장려상	2작품	상장 및 상품권 20만원
합계	총 10작품	

※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치매센터 홈페이지(incheon.nid.or.kr)에서 확인

문의 : 472-2027

## 행정서비스 사칭한 스미싱 주의하세요

최근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민원24(minwon.go.kr) 등 행정서비스를 사칭한 스미싱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지 말고 발견되는 즉시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사이버경찰청에 신고하기 바란다.

### 스미싱 문자 형태(예시)

– 일상 생활불편 민원이 신고되어 안내 드립니다.

신고내용 확인하기 ouidei.com

– 알림 음식물 방치 및 투기로 신고되어 알려 드립니다.

신고내용 보기 dfvbdffd.kr

– 민원안내 소음발생 건으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bioaise.me

– 재활용 분리수거 위반으로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ausierd.info

– 모바일알림 음식물 분리수거위반으로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민원내용보기 ioesiba.com

– 귀하께서는 쓰레기 투기로 인한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mopdae.me

### 피해신고

한국인터넷진흥원 : 전화 국번없이 118번, 메일 smishing@kisa.or.kr

사이버경찰청 : 전화 1566-0112



## 국가가 보증하는 주택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천지사는 그동안 부부 주택자만 가입이 가능했던 주택연금제도를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저가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 간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 주택연금

60세 이상 어르신께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부부 모두

평생동안 매월 생활비를 연금방식으로 받는 정부 보증 제도

### 주택연금 가입 요건

주택소유자 기준 60세 이상(합산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 가능)

대상 주택 : 9억원 이하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연립주택)

### 주택연금의 장점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와 연금수령을 보장

가입주택에 대해 재산세 25% 감면

### 주택연금 정산(부부 모두 사망시)

집값보다 덜 받은 경우 → 남은 부분 자녀(상속인)에게 상속

집값보다 더 받은 경우 → 부족분은 정부가 부담

문의 : 441-2159, 2172

## 사진공간 배다리 ‘그 집의 아침’ 전

사진공간 배다리에서 열리는 12월 전시 프로그램으로 초대한다.

전시 : 박선교사진전 ‘그 집의 아침’

기간 : 11월 28일~12월 10일

장소 : 사진공간 배다리 1관, 2관

시간 : 오픈 오후 1시~6시(목요일 휴관)

문의 : 070-4142-0897

## 2014 인천시니어창업센터 입주기업 모집

(사)한국소호진흥협회 인천지회 시니어 창업센터는 인천시의 시니어들에게 안정적인 창업과 취업의 연계를 위해 센터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신청대상 :창업희망자가 인천시민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장 주소가 인천시민 창업자로 벤처, 기술, 지식서비스 분야 사업자(예비창업자 우선 선정)

※예비창업자 : 신청일 현재 본인명의로 사업등록을 하지 않은자(40세 이상)

모집인원 : ○명

모집대상 : 기계, IT제품, 소재부품 등 보유기술을 기반으로 제품의 제조 및 인터넷서비스, 문화,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등 지식서비스와 연관된 창업을 원하는 예비창업자

접수기간 : 수시모집

문의 : 567-5051

## 인천시립박물관 12월 문화예술 행사

인천시립박물관은 12월을 맞아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를 열고 있으니 관심있는 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

## ‘오래된 이웃, 화교’기획특별전

기간 : 11월 25일(화)~2015년 2월 1일(일)

주제 : 화교의 역사와 그들을 향한 시선

대상 : 일반시민 누구나 관람료 : 무료 문의 : 440-6736

## 인천시민 인문학강좌 하반기 강의

일시 : 12월 9일, 화요일 오후 2~4시

주제 : ‘바다와 섬의 인문학 : 지구에서 해구로의 인식전환을 위하여’

대상 : 성인 140명 수강료 : 무료 문의 : 440-6732

## ‘박장대소, 토요일!’ 가족체험

일시 : 12월 13일, 토요일 오전 10~12시(저학년), 오후 1~3시(고학년)

내용 : 초등학교 1~3학년 가족 : 전통문양의 비밀

초등학교 4~6학년 가족 : 모여라, 인체니스트!

문의 : 440-6739

## 성인 남녀 중·고등학생 모집

학력인정 남인천고등학교는 배움의 한을 간직한 어르신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 성인 남녀 중·고등학생을 모집한다. 늦었지만 배움을 포기하지 않은 어르신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모집인원	5학급(200명)	4학급(160명)
수업연한	2년(1년 3학기)	2년(1년 3학기)
입학자격	①초등학교 졸업자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 ②교과부 지정 성인 문해학교 초등학력인정 과정 이수자	①중학교 졸업자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 ②만 16세를 넘은 자
원서접수	10월 1일(수)부터~선착순 접수 평일 오전 9시~오후 17시 30분(토, 일, 공휴일은 접수안함)	

문의 : 722-1311~4

## 수도꼭지에 고무호스 사용하면 안되는 이유?

올해 김장은 꼭 수도꼭지 직수를 사용하자.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물에 녹아있는 잔류염소와 고무호스 안에 들어 있는 페놀성분이 반응하여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는 성분이 생성되므로 올해 김장은 꼭 수도꼭지 직수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문외는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로 연락하면 된다.

문의 : 720-2200

### ‘정서진 해넘이축제’의 장으로 초대

인천시 서구에서는 2014년 한 해를 마감하는 뜻깊은 ‘제4회 2014 정서진 해넘이축제’와 ‘제2회 정서진불꽃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해넘이 행사를 통해 내일의 희망을 품는다는 주제를 담고 있다.

일시 : 12월 31일(수) 17:00~20:00

장소 : 정서진 아라빛섬 수변무대(※아라인천터미널 주변)

내용 : 식전공연, 해넘이 희망 대합창, 정서진 해넘이콘서트, 불꽃축제, 체험부스 및 먹거리 부스 운영

주최 : 인천광역시 서구

주관 : OBS, (주)한화, 경인일보

문의 : 560-5933



### 송도국제도시 사랑 글짓기, 사진 공모전

연구구는 송도국제도시의 아름다움과 자랑거리를 글 또는 사진으로 소개하는 글짓기와 사진공모전을 연다. 공모전을 통해 인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취지다.

응모대상 : 누구나(제한 없음)

주제 : 송도국제도시에 관한 아름다운 사랑 또는 자랑거리를 담은 글 또는 사진, 송도국제도시에 관하여 느낀 사랑, 자긍심 또는 자랑거리, 감명 받은 체험기, 송도관광체험기, 문화체험기, 송도발전 모습 등의 다양한 글 또는 아름다운 송도 관련 사진

〈공모일정〉

접수기간 : 11월 1일~12월 5일(당일 도착분에 한함)

입상작 발표 : 12월 초순(입상자 개별통지) 및 송도1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시상 : 12월 중순(수상자 개별통지)

접수처 : 송도1동 주민자치센터

문의 : 749-6540~1

### 12월 28일부터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

농수산식품부는 이달 28일부터 돼지고기 이력제를 시행한다. 돼지고기 이력제는 돼지와 돼지고기의 거래 단계별 정보를 기록, 관리, 문제발생 시 이동경로에 따라 역추적하여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고, 판매 시 이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다.

문의 : 1577-2633

### 인천시민원탁회의 참여하기

모두의 지혜를 모은다면 넘지 못 할 어려움이 없다. 혼자가 아닌 여럿이 꾸는 꿈은 희망이기 때문이다. 인천을 사랑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환영한다. 인천의 주인인 당신의 속 얘기를 들려주길 바란다.

일시 : 12월 18일(목) 오후 3시~6시

장소 : 인천광역시청 중앙홀

대상 : 인천을 사랑하는 시민 300인

주최 : 인천광역시,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진행순서

－ 오픈링 영상 : 시민의 마을을 움직이는 이야기

－ 발표 세션 : 민선6기 공약사항 실천계획 발표

－ 토론 세션 : 가장 우선적으로 실천해야할 공약은 무엇일까?

－ 의견 공유 및 총평

문의 : 440-2183

### 미추홀도서관 12월 문화프로그램

미추홀도서관 12월 문화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알차고 내실 있는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

프로그램명	내용	일시	대상	문의
시민건강강좌	인천성모병원과 함께하는 뇌혈관질환 강의	12월 17일(수) 15:00~16:00	성인	440-6662
2014 미추홀도서관 감사콘서트	1년간 미추홀도서관을 이용한 시민에 대한 감사 콘서트 (무용공연, 수강생 작품 전시 등)	12월 18일(목)	전체	440-6662
이형구 작가전	‘자연·소통’을 주제로 다양한 디자인, 캘리그래피 전시	12월 22일(월)~1월 12일(월)	전체	440-6663
감사 엽서쓰기 행사	올 한해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은 분에게 그림, 편지로 엽서에 표현	12월 22일(월)~1월 30일(금)	전체	440-6662
인천 다양성영화 공공상영 '별별별별 시네마'	독립·예술영화 상영	2014년 4월~11월 매주 화요일 15:00	전체	440-6666
북스타트 '아기 천사들의 목(木)소리'	책꾸러미 배부 및 아기들의 오감발달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책놀이 진행	2014년 12월 18일(목) 11:00~12:00	만 18개월 이하 영유아 및 부모	440-6648
송도국제기구도서관 '화요 시네마'	「따뜻한 겨울」, 관련 테마영화 상영	2014년 12월 매주 화요일 14:30	전체	851-6651
기증도서 수집	개인 및 기관에 대한 기증도서 수집	상시	전체	440-6656

### 인천의 스타를 찾아라! 인천N스타

인천N방송은 노래방 기능(음원)을 제공하는 MY VOICE(마이보이스)와 함께 스마트폰으로 가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대국민 오디션 '인천N스타'를 개최한다.

참여방법 : MY VOICE 앱(예선)과 인천N방송을 통해 본선 행사

참여방법안내 : admin.incheonntv.com → 해당 배너클릭

행사일시

예선진행 : 11월 16일(일)~12월 6일(토), 3주간, 온라인진행

심사 및 선정자 발표, 사전회의기간 : 12월 8일~12월 12일

본선진행 : 12월 13일(토), 오프라인 진행

문의 : 250-2143

### 겨울학기 문화학교 엽니다

연수문화원은 겨울학기 문화학교를 연다. 방학을 맞은 어린이,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교육기간 : 12월 1일(월)~2015년 2월 28일(토) 3개월

신청기간 : 선착순 마감

장소 : 연수문화원(연수구청 7층)

접수 : 인터넷(call.yeonsu.go.kr) 및 방문 접수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

만들기·그리기 : 3D 종이접기, 요리, 레고, 클레이, 창의로봇, 수채화, 찰흙놀이, 한글서예 외

연주·부르기 : 동요, 바이올린, 클라리넷, 기타, 요들송, 합창, 연극, 우쿨렐레, 플루트 외

전통 : 가야금, 대금, 소금, 민요, 해금 외

재밌는 공부 : 음악융합교실, 창의음악놀이, 독서토론&논술, 동화구연, 동화구연과 중국문화여행, 명화글쓰기 외

〈성인 프로그램〉

시각 : 전통유류유화, 한국화, 문인화, 연필인물화, 수채화, 서각, 플라워, 손뜨개, 퀼트&쌈시들 외

공연 : 팝송, 오페라, 우쿨렐레, 기타, 플루트, 하모니카, 가곡, 바이올린, 클라리넷 외

전통 : 지곤공예, 다도, 사물, 서예, 대금&소금, 민요, 판소리, 가야금(병창), 한지, 해금

인문 : 경제학, 문예창작, 동양고전, 한국어사, 독서 및 글쓰기 지도

문의 : 821-6229



### 생활 속 안전위험 요소 신고·건의 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생활 속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신고 또는 건의를 받고 있다.

〈신고·건의 대상〉

교통시설물 : 도로파손, 맨홀, 파손, 도로구조개선, 안내 표지판 미흡 등  
취약시설물 : 절개지, 노후 옹벽·축대, 가건물 등 노후건축물

다중이용시설물 : 여객선, 철도, 유원시설, 캠핑장, 야영장, 안전시설 등  
기타 : 상수도, 저수지, 배수펌프장, 가스, 전기안전시설 등

신고방법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내 안전제보 신청하기 코너

문의 : 국번없이 100번

### ‘인천관광 실태 및 만족도 조사’ 실시

인천도시공사는 인천이 관광하기에 더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인천관광 실태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 지난 1년간 인천을 여행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 관광도시 인천을 위해 많은 참여 바란다.

이벤트 기간 : 11월 10일(월)~12월 10일(수)

당첨자 발표 : 12월 12일(금)

당첨자 경품 : 소가족 목걸이형 카드지갑(20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트쿠폰(30명)

설문참여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yourincheon.tistory.com/entry)

문의 : 260-5000



2014년 과월호 목차

# 굿모닝 인천

Good Morning INCHEON

굿모닝인천(goodmorning.incheon.go.kr)은,  
'인천시미디어' 앱, 소셜웹(social.incheon.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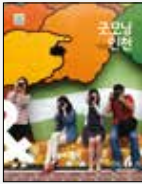
## 3월호



Taste 인천  
스페셜  
글로벌 인천  
포커스  
Culture Info  
내 길 내 일  
K리크 클래식 개막  
그린 인천  
'인천공보'로 본 60년 전 인천  
News Brief  
이달의 서평  
모닝커피 한잔  
생활정보  
2014 Great Asia 로(路)드  
에티켓  
Asiad News  
줄 인  
나라별 풍습으로 알아보는 아시아  
하나되는 아시아  
아시아를 배우다

누들로드  
백범 김구와 인천  
교육도시의 허브로  
외국 유명대학이 온다  
더 이상의 사중주는 없다!  
50여 년 철공소 외길 길철근 사장  
승리, 그 이상의 감동!  
5R 운동  
올해 경제성장률 2.7% 전망 외  
시간... 먼지되어 날다 외  
300년 고택, 오랜 시간 기와에 누워  
경중치매 돌봄 서비스 어르신 모집 외  
라오스  
명함교환 예절  
선학체육관 · 하키경기장 개장 외  
인천AG 공식 숙박업소  
나팔  
마음을 나누는 여행  
언어권별 회화

## 6월호



호국보훈의 달  
6월 월드컵  
희망 인천  
Culture Info  
내 길 내 일  
그린 인천  
사회적기업 탐방  
'인천공보'로 본 60년 전 인천  
News Brief  
의정뉴스  
이달의 서평  
모닝커피 한잔  
생활정보  
2014 Great Asia 로(路)드  
에티켓  
교통대책  
나라별 풍습으로 알아보는 아시아  
하나되는 아시아  
Asiad News

강화도 민통선 버스 기행  
한국철시축구학교, 레드엔젤스  
제물포스마트타운 준공  
시니어창업센터 개소  
'인천남구역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외  
최원영 다카시 이사장  
인천 희망의 숲 조성  
전통연희단 잔치마당  
'송도대 기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추진' 외  
지방자치제도 배우는 의정아카데미 열어  
'나는 내가 제일 어렵다' 외  
섬에 대한 나의 헛된 몽상  
'대한민국 대표할 평화의 노래 찾습니다' 외  
스리랑카  
파티 열기  
대중교통은 6만 관람객의 편하고 빠른 발  
중국  
'먹는 것 갖고 장난을 쳐?' 외  
'최경주, 2014 인천AG 홍보대사에 위촉' 외

## 9월호



경기일정  
경기장 가이드  
주요 경기  
개 · 폐회식  
마라톤 코스로 따라가 본 인천  
시상요원  
이색 자원봉사자  
인천 체육의 발자취  
대한민국 최초 최고  
인천 명소  
인천 속 아시아의 맛  
인천 먹거리  
축제

경기장 찾아 힘차게 응원합시다  
49개 경기장 정보 '실속있게 다 모았다'  
올림픽보다 세다! 인천AG 빅 매치  
45억 아시아인의 축제  
간격健脚, 인천을 플코스로 안내한다  
감격의 순간, 그들이 꽃처럼 등장한다  
경기장, 선수촌에서 '웰컴 인천'  
웃터굴에서 인천AG까지  
Only one, No. 1, 인천  
인천을, 출국 보따리에 싸가세요  
아시아가 다양하게 비쳐지는 인천  
추억보다 진한, 인천의 맛  
인천AG의 또 다른 즐거움, 문화 한마당

## 1월호



응시凝視하라, 2014  
2014 Great Asia 로(路)드  
Asiad News  
나라별 풍습으로 알아보는 아시아  
에티켓  
언어권별 회화  
하나되는 아시아  
Special Theme  
포커스

2014년 말의 해  
추억의 공간  
News Brief  
Council News  
내 길 내 일  
문화뉴스  
생활정보  
이달의 서평  
인천 통통(通通)  
신년사  
줄인

아시아의 얼굴들  
중국 서안  
아시아 43개국이 모여, 인천AG를 논하다 외  
필리핀  
나이프와 포크, 외국인인을 위한 작은 배려  
"안녕하세요"  
사우디아라비아 소년의 미소 외  
2014 시작  
2014 인천시정 키워드  
달라지는 새해 시정  
인천의 승마장 / 인천 역사 속 말(馬)  
동네 이발관  
월미은하레일 '레일바이크'로 재탄생  
시의원 직무능력 향상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도예가 고상순  
시립예술단 '2014 신년음악회' 외  
공연예술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외  
파이브 데이즈 외  
인천다움 느끼는 2014년을 준비  
갑오년(甲午年) 새해 아침에  
2014 인천시 자사성어

## 4월호



봄꽃  
드라마 in 인천  
스페셜  
Taste of Spring  
Culture Info  
내 길 내 일  
사회적기업  
그린 인천  
'인천공보'로 본 60년 전 인천  
차 한잔  
News Brief  
이달의 서평  
모닝커피 한잔  
생활정보  
2014 Great Asia 로(路)드  
에티켓  
2014 인천AG 소식  
줄 인  
나라별 풍습으로 알아보는 아시아  
하나되는 아시아  
아시아를 배우다

계양산에 피는 꽃  
별에서 온 그대  
봄 농장  
인천의 봄맞  
'인천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외  
여송 서복례  
(주)청솔노인요양센터  
승용차선택요일제  
인천공보 편집장 이준규  
'한국판 라스베가스'가 생긴다 외  
'나는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외  
신현수 시인  
'공동주택 이해관계인 아카데미 안내' 외  
대만  
승차 예법  
'메이지리거 추신수 인천AG 홍보 나서' 외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태국  
'아시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 외  
"맛집니다. 좋습니다"

## 7월호



민선 6기 열다

Summer Story

인천 팬타포트 락 페스티벌  
Culture Info  
내 길 내 일  
News Brief  
의정뉴스  
'인천공보'로 본 60년 전 인천  
생활정보  
모닝커피 한잔  
2015 세계 핵의 수도, 인천  
2014 Great Asia 로(路)드  
에티켓  
2014 인천AG  
북한 선수단 참가  
나라별 풍습으로 알아보는 아시아  
하나되는 아시아  
Asiad News

유정복 시장 취임  
유정복 시장이 걸어 온 길  
'희망인천' 여는 주요 공약  
바다에서 休&樂  
인천 섬 여행 버킷리스트  
드러머 정재형  
'아람 물류단지' 조성사업 본격화 외  
제 7대 인천광역시의회  
국문교육  
미추홀도서관 문화행사 외  
박형식 인천한누리학교 교장  
기억을 깎다 3.8km 외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식사 에티켓  
'안전' 세계 신기록 대회준비  
14개 종목에 150명 참석  
오르단  
더 높이 날아라~ 종이비행기야 외  
2014 인천AG '금 · 은 · 동'을 공개합니다 외

## 2월호



스페셜  
트렌드  
포커스  
Culture News  
내 길 내 일  
'인천공보'로 본 60년 전 인천  
사회적기업 탐방  
그린 인천  
News Brief  
의정뉴스  
서평  
모닝커피 한잔  
생활정보  
2014 Great Asia 로(路)드  
에티켓  
Asiad News  
줄인  
나라별 풍습으로 알아보는 아시아  
하나되는 아시아  
아시아를 배우다

인천의 고택  
물링(Malling)  
인천 구도심 여행  
매일매일 열리는 즐거운 공연 외  
인천 레슬링의 아버지 임배영  
(사)한국교로장애인진흥회  
카세어링  
송도에 올해 외국대학 3곳 연 연다 외  
'의회'가 학교로 찾아갑니다 외  
정윤수의 '노동의 기억 도시의 추억, 공장' 외  
자유로운 사람들의 춤 이야기  
대학생 서포터즈 4기 모집  
인도 델리  
인사와 악수  
"Hi 인천AG~" 홍보는 우리에게 맡겨요 외  
인천시체육회  
중국  
우리는 조류 독감 같은 거 몰라 외  
언어권별 회화

## 5월호



5월 특집  
인천, 장수 만세  
가정의 달 특집  
Culture Info  
내 길 내 일  
사회적기업 탐방  
모닝커피 한잔  
'인천공보'로 본 60년 전 인천  
포커스  
News Brief  
의정뉴스  
이달의 서평  
생활정보  
2014 Great Asia 로(路)드  
에티켓  
Asiad News  
줄 인  
나라별 풍습으로 알아보는 아시아  
하나되는 아시아  
아시아를 배우다

사찰의 봄  
사찰이 품은 보물  
100세 넘긴 어르신들  
가족 나들이  
할락궁이의 모험 외  
'인천의 어제와 오늘' 블로그 운영 김식만 치과의사  
(주)인인  
인천청소년명예외교관  
제4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  
인천어린이과학관 교육기부 우수기관 선정 외  
제115회 학생 의정 체험 프로그램 운영 외  
사라진 그림들의 인터뷰 외  
5월 가정의 달 문화행사 참여하세요 외  
미안마  
방문 에티켓  
키르기스스탄에서 Fun Run~ 외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완공  
일본  
키르기스스탄의 춤추는 소녀 외  
언어권별 회화

## 8월호



교향방문 스페셜

여름 특집  
인천의 섬

Culture Info  
내 길 내 일  
News Brief  
의정뉴스  
'인천공보'로 본 60년 전 인천  
생활정보  
모닝커피 한잔  
2015 세계 핵의 수도, 인천  
2014 Great Asia 로(路)드  
에티켓  
2014 인천AG  
나라별 풍습으로 알아보는 아시아  
하나되는 아시아  
Asiad News

인천 천주교의 역사  
천주교와 인천 성지  
야간 명소  
교통도  
대중시장 사람들  
인천 사이클의 대부 이흥복  
SW융합클러스터 사업 최종 선정 외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부의장 인터뷰  
저울논 속에 먹던 악질 상인 5명 적발  
미추홀도서관 문화행사 외  
스마트 독립군 '인천N방송'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외  
사막에 핀 황금빛 꽃 두바이를 가다  
공연 예절  
입장권 및 기념주화 구매  
감보디아  
노을을 향한 손짓 외  
강릉 찍고 부산까지~ 인천AG 홍보 외

## 11월호



2014 인천APG 홍보  
늦가를 풍경  
시네마 인천  
스페셜  
내 길 내 일  
문화  
Culture Info  
'인천공보'로 본 60년 전 인천  
시정뉴스  
의정뉴스  
이달의 서평  
사회적기업 탐방  
생활정보  
독자가 꾸미는 하나되는 아시아  
모닝커피 한잔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이모저모  
북성포구  
예술극장  
영화 감상 동아리  
시정 10대 핵심과제  
도성양복점 김진성 대표  
'사람, 마음, 풍경' 展  
음악창작극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  
인천남구역성합창단 제20회 정기연주회 외  
김장 위해 밤낮 나오는 수돗물 외  
화장품 '어울(Oul)'을 기대해주세요 외  
'교복 구매' 반값 실현, 과연 가능한가? 외  
전개의 성공을 만든 작은 행동의 힘 외  
(주)다함께  
나의 IFEZ010이 에세이 콘테스트 공모 외  
미안마의 심장, 셰다곤 파고다 외  
이영대 인천개항장연구소 대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민여러분, 2014년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시는 2015년도 시민이 행복한 인천, 비전이 있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청소년과 함께하는, 인천근대문화재 둘레길

글 이명운 사단법인 해반문화 운영위원장

수능을 끝낸 수험생들은 학교는 물론 그 어디에서도 마음  
을 둘 곳이 없다. 억지춘향으로 학교에는 나가고 있지만  
생각은 다른 곳을 헤매고 있다.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그 어디에도 마땅한 것이 없다. 그렇다면 내 고향을 알아  
보는 방법으로 주변 근대문화재에 관심을 가져보라고 조  
심스럽게 권유한다.  
수능을 전후해서 젊은 날의 고민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도 일어난다. 그들을 위한 구체  
적인 대안으로 인천을 사랑하고 자기 고장을 사랑하는 방  
법을 준비해야 한다. 인천을 제대로 알리는 방법 중, 청  
소년들에게 인천을 소개하고 인천의 장점과 인천이 가진  
문화적 가치를 제대로 알려만 주어도, 청소년들은 고향  
인천을 위한 준비된 자원이 될 것이다. 내가 숨 쉬고 서  
있는 이 땅이 대한민국의 중심이었다는 역사적 의미와 친  
구들이 왔을 때 ‘내 고향은 이런 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  
자긍심을 심어 주고 싶다. 그로인해 소개되지 못한 명소  
를 찾아 기록하고 알리는 작업을 청소년들이 할 수 있다  
면 참 좋겠다.

이런 고민 끝에 만든 것이 사단법인 해반문화의 ‘인천근  
대문화재길 손수건지도’다. 인천 중구의 근대문화재를 3  
개의 테마(경제길, 학교길, 종교길)로 구분하고 회원들이  
거닐면서 걸음수로 동선을 측정한 것으로, 최정숙 작가님  
이 재능기부로 만들었다. 우리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  
을 해반문화라는 울타리 안에서 즐겁게 실현하며 인천을  
알리고 있다. 인천을 알리기 위해 1994년 인천의 문화에  
관심을 둔 사람들이 모여서 해반 문화학교, 골목길 지킴  
이 양성교육 등 인천의 자질구레한 일들서부터 청소년 문

화지킴이단 활동까지 묵묵히 인천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  
다. 청소년 문제가 불거질 때면 그냥 관여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으면 편해진다. 청소년들과 함께 하기에는 여러  
제약이 있다. 세월호 사건 이후로 안전문제, 교육과 현장  
의 연계, 학부모의 걱정, 학교관리자의 쓸데없는 걱정까  
지 겹쳐서 진로지도는 움츠러들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부모와 함께 하는 봉사로 인천의 문  
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학생들  
의 진로지도는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학교와  
봉사가가 마음을 함께 해야 한다. 나아가 부모님이 다니  
던 맛집 혹은 부모님의 데이트 장소가 아직 남아있다면,  
가족이 함께 이들 장소에 방문하여 그 역사적 의미에 대  
해 이야기하는 멋진 광경을 꿈꾸어 본다. 우리의 힘은 가  
정과 함께할 때 제대로 발현되기 때문이다.

## 내 가슴에 새긴 한 구절

**‘Stay hungry, stay foolish’**

—스티브 잡스(Steve Jobs 1955-2011)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하기 위해 대학을 자퇴하고, 친  
구 집에 얹혀살면서 빈 병을 주워 끼니를 때우며 애플사를 창업한다. 제  
대로 된 음식을 먹기 위해 7마일이나 걸어서 예배에 참석했고, 이때 배  
운 타이포그래피는 그의 인생에 큰 거름이 된다. 애플을 창업하고, 자신  
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나고…. 그래도 마음을 잡고, ‘Stay hungry! stay  
foolish(아직 배고프다, 그래도 우직하게 나아가리라)’를 외쳤다.  
이는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의 연설문에 나오는 구절로, 시민운동도 이  
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채우지 못한 인천사랑을 청소년이 이  
어주길 바란다면 ‘우직하게 바보처럼’ 나아가야 한다. 꿈에는 갈증이 없  
다. 하루도 손해 보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계산을 한다. 하지만 시민  
단체의 행동하는 삶은, 언젠가는 우리를 풍족하게 만들고 영원히 배고  
프게 만들 것이다.



## 몽(夢)땅 인천골목



## ‘빌트인’ 자판기

구멍가게에서 운영하는 커피 자판기입니다.

벽 뚫고 자판기를 설치했습니다.

요즘 원룸, 오피스텔 등에서 유행하는 빌트인(built-in) 방식입니다.

작은 타일을 붙여 예쁘게 마무리도 했습니다.

눈비를 피하고 도난 방지는 물론 합리적인 공간 활용까지

주인장의 아이디어가 반짝 반짝 반짝합니다.

— 중구 율목동에서

글 · 사진 유동현 본지편집장